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DREAM JEJU

드림제주



2022
가을
AUTUMN
Vol. 36



제주 바람(바람)

풍다(風多)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는 유독 바람 많고 풍세(風勢)가 큰 지역입니다. 척박한 화산재 토양만큼이나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삶을 녹록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주사람들은 바람을 닦하기보다는 바람에 순응하고 때론 이겨내기 위해 삶의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낮게 지어 동여맨 초가의 지붕과 구멍 송송 뚫린 돌담의 바람길은 웬만한 큰바람에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조랑말에 맨 남태로 다져주면 푸석한 흙밭에 뿌려둔 씨앗도 바람에 날리지 않고 싹을 틔웠고, 거센 바람 뒤 불어오는 순풍은 제주와 물 사이 먼 바닷길을 이어주는 고마운 길라잡이가 되었습니다.

바람과 함께해 온 제주인의 희로애락,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항상 도민 곁에서 결실의 순풍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바람에도 맛이 있다

바람이

제주바람은

간이다

싱겁지도

아주 짜지도 않은

짭조름한 마농지처럼

양창식

밥 맛나게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사흘만 바람이 안 불어도

물맛도

밥맛도

심심하다

입맛 나게 하려면

해수 머금은 바람이 발담 사이를 유희하면서

서귀포 밀감 밭에

대정 마늘 밭에

애월 양배추 밭에

김녕 당근 밭에

슬쩍 슬쩍 간을 해주어야 한다

바람 많은 제주는 바람이 간이다

오죽하면 사람들조차 간이 배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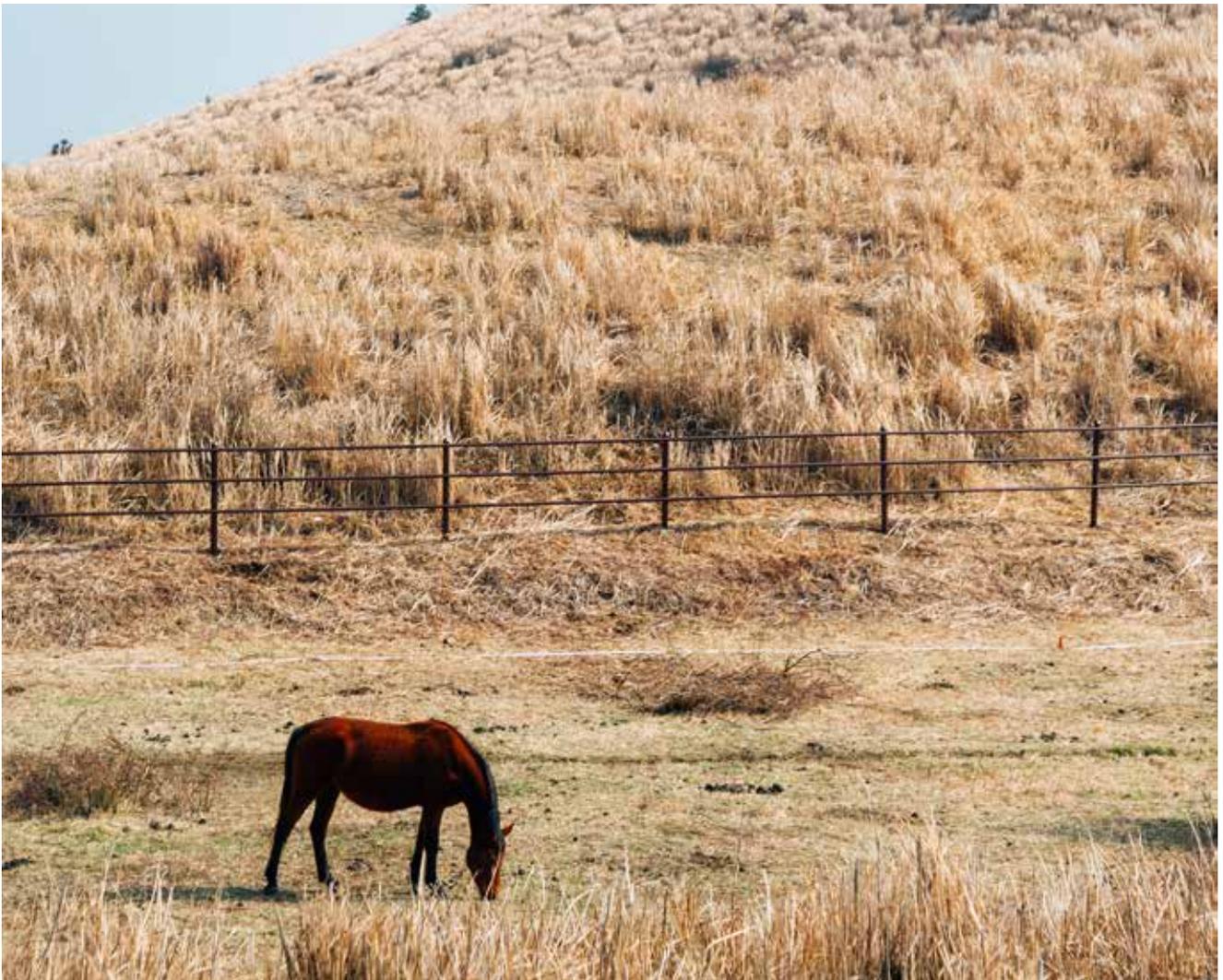
한국문인협회 회원, 서울시인협회 회원, 제주문인협회 회원

2009년 『정신과 표현』으로 등단(신인상),

2018년 계간 『시와 편견』 봄호에 유안진 시인의 추천으로 재등단

제주국제대학교 총장·대학원장·교수 역임

시집: 『제주도는 바람이 간이다』, 『노지소주』, 『생각의 주소』



가을녘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제주마(濟州馬)

CONTENTS



기획특집

- 03 **사진과 시**
제주도는 바람이 간이다
- 06 **발간사**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 구현
- 08 **기획1_더 많은 기회**
제12대 도의회 의정 현황
도민과 함께 행복한 제주를 향해
- 18 **기획2_더불어 행복한 제주**
렌터카총량제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 22 **기획3_제주 관광**
바람의 고향에서 삶의 노래를 불러라

도의회는 지금

- 32 **현장속으로**
- 34 **의정 칼럼**
도민 이익 우선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 36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복지
- 38 지역과 협력하는 국가공기업
상생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 40 제주의 비전과 다문화 정책
- 42 도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파크 & 컴플렉스 리빌딩
연차사업으로
- 44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
- 46 **제11대 도의회**
의안 접수·처리 현황
- 50 **알기쉬운 생활법률**
- 51 **연간 의회운영 일정**

DREAM JEJU

드림제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

발행일 2022년(가을호 통권 제36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편집인 양기철 사무처장

편집 공보관 김석주, 미디어팀장 양운학

디자인·인쇄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064-757-0523)



제주를 느끼다

- 52 **명인열정**
제주 도기가 빛어 만든 박물관,
강창언 촌장
- 58 **곱들락한 제주**
또다시 바다로 간 고래가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
- 62 **섬 위의 풍경**
함께 걷는 그림,
제주 벽화 거리
- 66 **제주의 향기**
철따라 자연에서 찾은
제주인의 음식문화

제주를 탐하다

- 70 **소담만담**
두드림의 에너지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가는
국향난타
- 74 **골으멍 들으멍**
조퇴홀 궁냥도 으라 가지
- 76 **가름산책**
유자꽃 향기가
계절이 바뀌어도 남아 흐르는
호근동·서호동
- 82 **독자설문**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 구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원은 45명입니다. 초선의원은 25명, 재선의원 16명, 3선 의원 4명입니다. 20대 1명, 30대 2명이 입성하여 더 젊은 도의회가 됐습니다. 여성 의원은 8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은 제주도의회가 각계각층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슬로건은 전국 공모 절차 등을 통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정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제주, 누구라도 와서 뜻을 펴고 경제적 성취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돌과 바람의 화산회토에서 자강불패의 도전정신과 기쁨과 슬픔을 이웃과 함께 보태고 나누는 수놓음 문화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의정슬로건과 의정방침에 맞춰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00일 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1차 추경, 인사청문, 태풍 내습에 따른 현장 점검,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2차례에 걸친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도 결산 승인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일본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촉구와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을 건의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인구 70만 시대에 맞춘 인프라 구축, 4·3 수형인 재심,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굵직굵직한 안건과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도의원 45명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현황

“도민과 함께 행복한 제주를 향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슬로건의 핵심은 ‘민생의정 구현’입니다.
경제, 문화, 교육, 환경, 의료 등 도민 삶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한분 한분 편에 서겠다는
제12대 도의회의 굳은 의지입니다.

기회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회를 펼치는 실현의 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프라는 물론, 공정과 신뢰, 충분한 지원이 뒤따르는 기회여야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비로소 도민 행복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실현의 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우선입니다.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소외되고 잊힌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12대 도의회는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현장 속 도의회’가 될 것입니다.

도민의 걸음에 맞춰,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도민과 함께 행복한 제주를 향해 가는 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제주도의회 의정 슬로건 확정 3대 의정방침 통해 방향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의정 슬로건 현판식을 갖고 12대 의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12대 도의회 의정슬로건은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이다. 의정방침은 ‘1.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제주 2.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제주 3.모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제주’다. 의정 슬로건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관심을 유도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을 전국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150여 건의 제안이 제출됐으며,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슬로건과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의정 슬로건은 제주도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제주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부할 기회, 취업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기회가 많아지는 제주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하나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를 메꾸어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 제주를 만들어가자는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달 8월 25일 오전 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의정 슬로건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가 될 때 희망의 제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학 의장은 “앞으로 의회를 오가는 모든 분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이 가득해지시기를 바라며, 12대 의회의 힘찬 출발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도의회,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 합의

민생 안정·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 정책공조 합의문 발표
국비 확보단 공동 운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맞손 잡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 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9월 8일 오후 4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합의문에 따라 제주도과 도의회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요보호아동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급생계지원과 제주형 통합 복지하나로 사업 구축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투자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을 설치해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생 버팀목 맞춤형 예산편성'을 통해 청년과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제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절충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도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선발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와 선도적 제주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미래지향적 의회상 구현에도 함께 노력한다.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안 입법,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경제를 하루 빨리 안정시키고,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향후 예산편성과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정과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도민 사회 고통과 걱정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함께했다”며 “때로는 앞에서 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며 제주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 함께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직후인 7월 8일 긴급정책간담회 이후 꼭 2달 만에 이뤄진 자리다.



다양한 자문 제주도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출범 위원장 이창준·부위원장 김봉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성된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도민과의 소통 창구역할 등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 55명이 도의회 7개 상임위원별 분과로 참여했다.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의정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제시하는 자문들은 제주를 발전시킬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준 위원(문화관광체육분과)이 부위원장에는 김봉섭 위원(의회운영분과)이 선출됐다. 이창준 위원장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들의 조력자로서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아트 스토리텔러 이진희 강사를 초청해 의정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했다.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본격 활동 시작

64명 위촉 임기 2년

8일 위촉 및 전체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기 옴부즈맨 위촉장 수여 및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맨은 43개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 회원 중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 총 64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4년 6월 말까지다. 옴부즈맨은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도내 각 지역에서 본격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식은 1·2부로 나뉘 1부는 위촉장 수여 및 상건례, 2부엔 옴부즈맨 운영계획 설명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순서로 진행

됐다.

옴부즈맨은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지역개발·주민 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는 제도다.

제주도의회 옴부즈맨은 그동안 181건의 제안·제보 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옴부즈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타시도 옴부즈맨 우수사례 견학, 운영위원 회·분과위원회 지원, 우수 옴부즈맨 표창, 옴부즈맨 활동 보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옴부즈맨은 그동안 도민 불편이나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건의하고 해결해 왔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제보를 해주신다면 의회는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교류 활성화 협의

김경학 의장 몽골 의회 방문

제주 국제개발협력 방안 논의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9월 2일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를 방문해 티렌 도로이 잠발수렌(T.Jambalsuren) 의장을

만나 양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상호 방문 등 교류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투브아이막의회 잠발수렌 의장이 양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경학 의장을 몽골로 초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는 투브아이막의회 의원 11명이 참석해 상호 격년제 방문 재추진 및 문화·관광·체육 및 마산업 등에 대한 지역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제안됐다.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와 수산물 현장을 방문 하며 투브아이막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스포츠, 통상, 교역 등으로 교류의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양 의회의 교류 재활성화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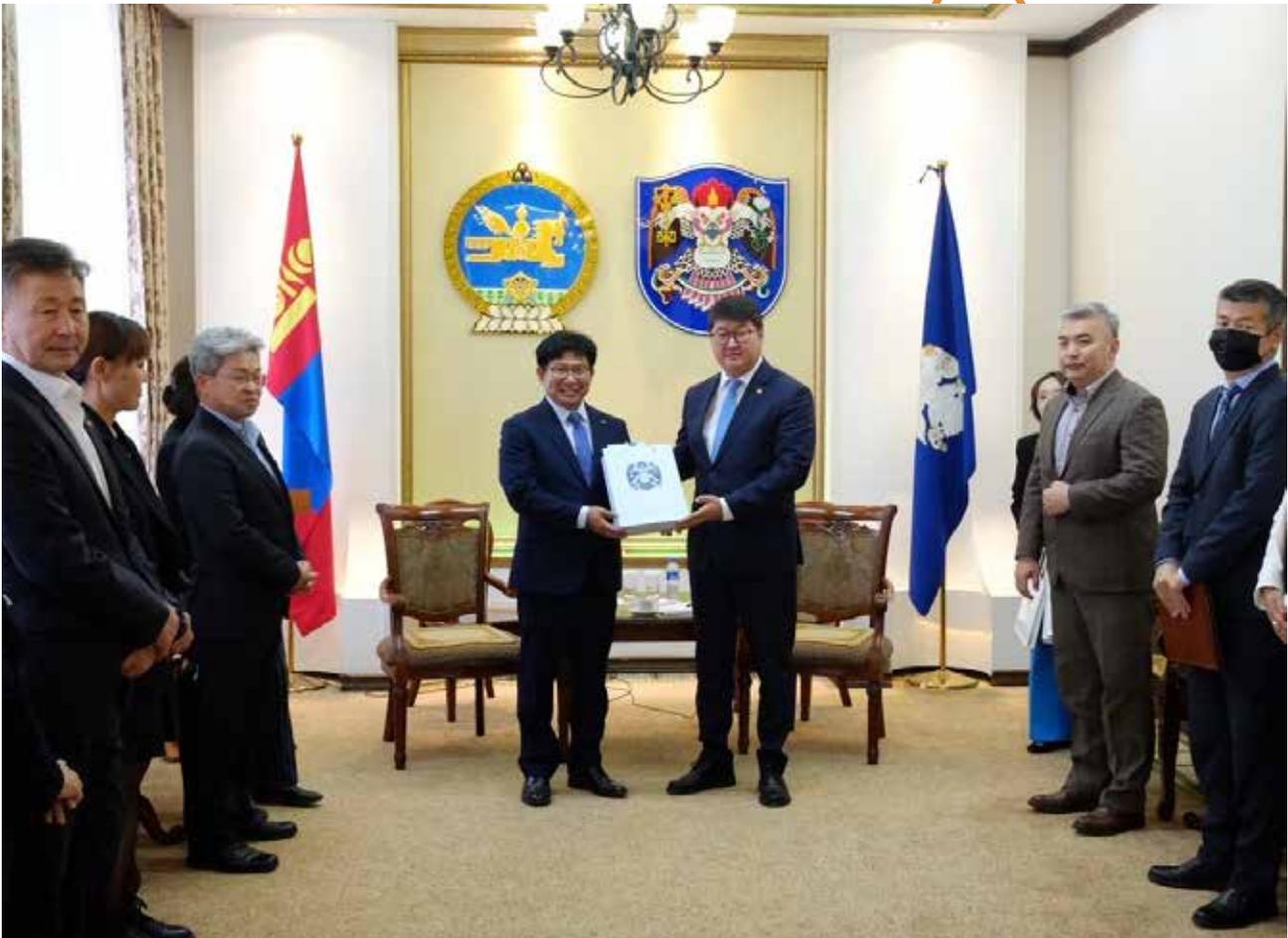
제주도의회는 투브아이막의회와 2017년 의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의회가 교류의 물꼬를 튼 지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에 앞서 김경학 의장은 지난달 8월 31일 한국국제협력단 몽골사무소를 방문해 몽골 ODA(공적개발원조)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제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몽골 정부 건설도시개발부 바야르 사이칸(D.bayarsaikhan) 총괄국장을 시작으로 몽골 국가체육 위원회 자르갈사이한(D.jargalsaikhan) 위원장, 울란바토르 시민회의 바트바 갈란 장산(Jantsan Batbayas galan) 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문화·관광·체육 및 산업 선진정책 등에 대한 몽골과 제주간 교류 다변화를 통해 각 분야별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몽골 방문에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과 양용만 의원, 원화자 의원이 함께했다.



“오늘은 내가 도의원” 청소년 의정 체험 마무리

8월 10일~9월 2일 6개팀

초·중·고교생 184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오늘은 내가 도의원”을 주제로 ‘2022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의정체험은 청소년들이 직접 도의회 의사당에서 모의 의회를 운영하고 도의원과의 만남, 의회 소개 등으로 이뤄졌다. 의정체험에는 초등학교 2개팀, 고등학교 1개팀, 지역아동센터

1개팀, 학원 2개팀 등 6개팀 184명이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모의의회에서 도의회가 제공한 예시 또는 자체 시나리오를 활용해 의장과 도시사, 교육감, 의원 등 역할을 맡았다.

이어 도의회 본회의 운영방식에 따라 ‘본회의 개의⇒보고사항 보고⇒안건상정⇒도정질문⇒도정질문 답변⇒교육행정 질문⇒교육행정질문 답변⇒조례안 안건상정⇒제안설명 및 찬반토론⇒표결⇒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안건처리를 경험했다.

이번 의정체험에 참여한 팀은 하귀초등학교 41명, 해안초등학교 38명, 이호지역아동센터(초등) 20명, 호시통보습학원(중등) 19명, 호시통보습학원(초등) 21명, 제주고등학교 45명이다.



교류 경험·성과 바탕 진전된 상생협력 추진

제주도의회-강원도의회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와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0월 17일 오전 11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양 의회 의장·부 의장·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와 강원도 의회는 2017년 의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

류의 물꼬를 튼 지 올해로 5년을 맞이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협약은 그동안 교류해왔던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더 진전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양 의회는 이번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 역량 강화, 특별자치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분권 2.0 선도를 위한 합동 세미나 교차 개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찬회, 문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학 의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



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어 특별자치도의 동반성장을 위해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통해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양 의회뿐만 아니라 양 지역이 동반 성장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 전문가 초청 연찬

9월 7일 사무처 직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이선이 사무관을 초청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및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을 주제로 맞춤형 법제 실무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의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 제·개정문 작성,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방법 등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해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전문가 초청 연찬이 도의회에 처음 근무하는 신규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연찬을 통한 전문지식을 실무에 잘 활용해 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법제처·국회입법조사처·국민권익위원회 법제 담당자 및 법학 전공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 총 17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연찬을 실시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나서

위원장 현지홍·부위원장 이남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사회보장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중인 10월 18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위원장에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선출했다. 참여한 의원은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강경흠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흥동)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두터운 지원 필요성, 돌봄체계 및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 필수인력의 처우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안 제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현지홍 위원장은 “다년간 사회보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과 현장 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대 및 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보장 포용성 제고와 일자리 안정망 확충,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중장기 정책 전략을 구상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속도내야”

4·3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10월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강민철



4·3지원과장,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이택 사무처장, 김상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도와 교육청, 4·3평화재단이 추진하는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차질 없는 보상 절차 추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정정, 4·3수형인 명예회복 등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4·3의 전국화·세계화 등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제12대 4·3특별위원회는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이 4·3유족으로 구성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폭넓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첫 업무보고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권 위원장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와 관련 실국 및 기관의 책임과 노력,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4·3의 미진한 과제를 풀고 새로운 의제에 대응하는 모든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민간전문가 7명 위촉

윤리강령 준수 여부·징계 자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10월 4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검칙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 자문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윤리 청렴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을 위원

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은, 고대용 한라일보 경영기획실장, 김수진 법무법인 참솔 변호사,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정언 법률사무소 제주드림 대표 변호사, 부봉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회장, 조준범 변호사다. 이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커진 만큼, 투명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획 2

렌터카총량제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글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제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자-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 및 토목 기술 발달로 편리성 중심으로 자동차 위주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환경오염, 에너지, 도로정체, 교통사고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큰 노력과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구의 증가는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졌고 관광객의 증가는 렌터카의 증가로 이어졌다. 렌터카가 지속해서 증가해 2015년 2.6만 대에서 17년 3.2만 대로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웃는 수치로 제주 관광이 렌터카 중심. 개별관광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위기를 느껴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17년 말 렌터카 적정 대수는 25,000대로 산정되었고, 18년도 렌터카 수급 조절 계획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의욕이 앞섰는지 법률적 기반이 확실하게 확보되기 전부터 행정에서는 렌터카 증차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고, 증차를 허용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렌터카 감차 기조에 영향을 주어 정책 실현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행정에 협조하여 자율 감차를 진행한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렌터카 업체 및 등록대수

(단위: 개, 대, %)

구분	년도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15~'21	'18~'21	
업체수	합계	93	108	115	125	125	114	113	3.3	-3.3
	도내	76	88	96	109	112	104	104	5.4	-1.6
	도외	17	20	19	16	13	10	9	-10.7	-17.5
렌터카 등록대수	합계	26,338	29,583	32,053	32,612	30,303	29,658	29,838	2.1	-2.9
	도내	16,480	19,570	22,724	23,698	22,760	22,249	22,518	5.3	-1.7
	도외	9,858	10,013	9,329	8,914	7,543	7,409	7,320	-4.8	-6.4
렌터카 증가 (2018년 기준)	합계					-2,309	-2,954	-2,774		
	도내					-938	-1,449	-1,180		
	도외					-1,371	-1,505	-1,594		

자료: 교통현황, 각년도, 교통항공국 자료

렌터카의 증가는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렌트카총량제 이후 사고 건수 -1.6% 감소, 사망자 수 -13.1% 감소, 부상자 수 -1.9% 감소로 전국에 비하여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국대비 4.2%~5.4% 수준으로 분석됐다.

렌터카 수급 계획은 도내 차량 증가로 인해 차량정체로 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렌터카 차량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와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짐은 물론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등 렌터카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높아져 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앞서 말했듯 제주는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차량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보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그 기회비용은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가중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치 못할 것이다.



렌터카 수급 조절 이후 렌터카 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렌터카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5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렌터카 수급 조절은 15분 도시 등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중앙차로 등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민사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교통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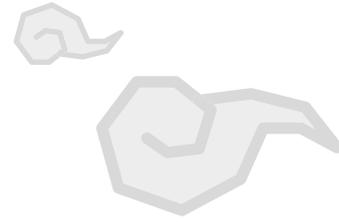
(단위: 인,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	
건수	타지역	사고건수	7,508	7,370	8,080	9,369	9,729	6.7
		사망자수	99	109	99	79	92	-1.8
		부상자수	12,129	11,915	12,792	15,173	15,368	6.1
	제주도	사고건수	526	521	513	607	494	-1.6
		사망자수	7	7	6	3	4	-13.1
		부상자수	947	879	905	1083	876	-1.9
	전국	사고건수	8,034	7,891	8,593	9,976	10,223	6.2
		사망자수	106	116	105	82	96	-2.4
		부상자수	13,076	12,794	13,697	16,256	16,244	5.6
구성비	타지역	부상자수	93.5	93.4	94.0	93.9	95.2	-
		사고건수	93.4	94.0	94.3	96.3	95.8	-
		사망자수	92.8	93.1	93.4	93.3	94.6	-
	제주도	부상자수	6.5	6.6	6.0	6.1	4.8	-
		사고건수	6.6	6.0	5.7	3.7	4.2	-
		사망자수	7.2	6.9	6.6	6.7	5.4	-

자료: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각년도

1,5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관광패턴 또한 대중 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효율적이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사회뿐 아니라 도내 관광산업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



“금년은 풍우(風雨)가 매우 사나워 바닷물이 날아들어
벼와 곡식을 마르게 손상시켜 크게 흉년이 들었지만 구휼
할 길이 없으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 중종 5년(1510년)

바람의 이름

제주에는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태풍의 길목이라 바람(風多)이 잘 타는 곳이다. 바람은 초가의 모양, 울레의 구조, 풍향수, 돌담의 경관을 만들어 내었다. 바람은 바다의 생산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녀들의 영등신앙과 요왕(용왕)신화를 탄생시켰다. 바람은 외방(外方) 문화를 데려왔으며, 표류·표착의 애달프고 한 많은 사연의 역사와 전설을 만들어내었다.

바람(wind, 風)은 ‘부름’, 혹은 ‘부름’이라고 해 지역마다 발음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15세기 표기로는 ‘부름’이니 제주사람들은 현재까지 500여 년 전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바람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바람을 ‘부름 주제’라고 한다.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다. 회오리바람을 ‘도깡이’ 혹은 ‘뒤편’이라고 하며, 갑작스럽게 부는 회오리바람을 ‘도깡이 주제’, 혹은 ‘강챙이’라고 한다. 바다 가운데에서 하늘로 기둥처럼 돌면서 오르는 회오리 바람을 ‘용오름’이라고 한다. 일종의 토네이도 현상으로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모양이라고 하여 뱃사람들이 부르는 것이다. 서로 엇갈려서 양쪽으로 오는 바람을 ‘양도새’라고 하고, 그 양도새는 바닷물의 조류에도 영향을 받는데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이 바람이 잘 분다. 이때 조류가 바람을 타면서 ‘치치치척’ 물결 스치는 소리가 난다. 거센 물 조류는 ‘첫’이라고 하며, 이 ‘첫’은 물살이 썸 곳의 지점을 말하고 단계적으로 물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다. 그 조



바람을 이겨낸 풍향수

류가 있는 곳은 고기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잘 잡힌다. 또 자리돔을 그물로 잡을 때 서갈바람(남서풍)이 불면 의지할 지형이 없기 때문에 파도도 세고, 물결도 어지러워 어부들은 거의 작업을 포기하고는 항구로 돌아온다. 이 바람이 불면 “무는(잘 낚이는) 고기도 안 문다”는 옛사람들의 설이 있다.

초겨울 싸하게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도지’라고 하며, 갑자기 부는 초겨울 산바람을 ‘도지 주제’라고 한다. 바람이 조금 세면서 간격을 두고 부는 바람의 성격을 ‘주젯 주젯’ 분다고 한다. 마치 바람이 리듬 타듯 부는 것이다.

바람의 명칭은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다르다. 대정지방을 기준으로 하여, 북풍은 하늬바람, 서북풍은 섯하늬바람, 북동풍은 늣바람, 동북동풍은 늣새바람, 혹은 신섯-바람이라고 하고, 동풍은 섯바람, 남동풍은 동마바람, 남풍은 마바람, 서풍은 늣바람(갈바람), 남서풍은 서마바람이라고 한다(박용후(朴用厚), 1997).

제주도 바람을 15개 방향으로 나누기도 한다. 하늬바람(바른 하늬바람), 늣하늬 바람, 늣섯바람, 두섯바람,(정섯바람), 궂

섯바람, 섯바람(바른 섯바람), 신섯바람(도마뜨름, 서름새), 을진풍, 삼부새, 마뜨름, 섯마뜨름(골마뜨름), 서갈바람(늣바람), 갈바람, 늣하늬 바람(산내기 바람), 섯하늬 바람(늣하늬 바람) 등이다(진성기(秦聖麒), 1997).

바람에 대한 예견과 비유

동물들은 기후 변화에 민감하다. 비를 예견하거나 앞으로 닥칠 폭풍을 감지하기도 한다. 까마귀는 제주에 무척 많다. 까마귀가 지상에서 종종 뛰며 걷는 모습을 의태어로 표현한 말이 “강굴락 강굴락” 한다고 한다. 제주의 특이한 풍경 중 수십, 수백의 까마귀들이 하늘을 일정한 패턴으로 선회하며 장관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의 들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까마귀들의 빠른 원무(圓舞)는 기이할 정도이다. 날씨가 나빠지려고 하면 수백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를 빙빙 돌며 빠르게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치기를 반복하는 까마귀들의 이런 모습을 ‘풍조(風鳥)’라고 한다. 이 풍조를 제주에서는 ‘바람까마귀’라고 한다.

옛 제주 사람들은 정신없게 부는 양갈진 바람이 불 때면 그

것을 가리켜 “그년의 부름이여!”라고 하여 한 마디로 센 바람에다 여성의 성깔을 비유했다. 그렇다. 제주 여성은 괄괄하다. 지금도 그 DNA를 물려받았는지 많은 사람은 여전히 여성의 성질이 노실게(날카롭게) 느껴진다. 환경적 인간이다. 변방의 섬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 남성들의 입에서 “저런 성질 머리 하고는!”하고 저절로 나올 만큼 억세게, 그리고 부지런히 살았던 것이다.

바람. 바람이 부드러울 때는 감미로울 정도로 황홀하다. 여름 날 띄약벌 아래 바람 한 줄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

래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나마 시원한 기분을 느끼라고 집 어귀나 마을 곳곳에 멀구슬나무를 심어 두었다. 멀구슬나무는 그늘이 좋고 어디서나 빨리 자라는 특성이 있고, 그 나무의 잎새가 워낙 작고 어려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금세 잡아둔다.

바람은 사시사철 분다. 섬에서는 바람이 없는 날이면 오히려 불안하고 이상하게 생각된다. 인생 자체가 고행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 대목에선 인생이란 한갓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라고 한 칼 포퍼의 말이 번뜩인다.

1. 번시지의 폭풍을 표현한 작품 / 2. 바람 까마귀 / 3. 바람의 언덕 목지곳



因因乎



중국 바람의 신 인인호

바람의 신들은 누구

바람은 '영(靈), 우주의 숨결을 상징하며, 우주의 기운으로 표현된다.

중국의 지리서(地理書) 『산해경(山海經)』 「대항남경(大荒南經)」에 바람의 신이 등장한다.

이 신의 이름은 '인인호(因因乎).

남극에 살며 바람을 들고 나가게 한다. 그리고 『해외북경(海外北經)』

에도 '촉음(燭陰)'이라는 신이 나온다. 이

신은 눈을 뜨면 낮이 되고,

눈을 감으면 밤이 되며, 숨을 내

쉬면 겨울이 되고, 숨을 가볍게 내쉬면 여름이 된다.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며 숨도

쉬지 않는데, 숨을 쉬면 바람을 일으킨다. 이 '촉음(燭陰)'은 천지를 개벽했다는 '반고(盤古)'의 전신(前身)이라고도 한다.

바람은 끈, 실, 그물과도 연관이 있다. 힌두교 성전 『우파니샤드』에는 "끈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해주는 바람과 같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리스의 '아이올로스'는 바람의 신이며, 바람에 의해 소리가 나는 모든 악기의 신이기도 하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잡아두기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바람은 신들의 사자(使者)이기도 하며, 회오리바람은 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고조선기」에는 환웅이 바람의 신 풍

백(風伯), 비의 신 우사(雨師), 구름의 신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로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이때 360여 가지 일 중 곡식을 으뜸으로 내세운 것은 바람의 역할이나 상징성이 풍요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 바람의 신, 영등할망

고종 때 대정현감으로 재직한 남만리(南萬里)의 『탐라지』에 보면, 영등신의 유래가 잘 묘사되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당나라 상인이 제주 지역에서 표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몸이 네 개로 나누어져, 머리는 어등포(於登浦)에 떠올랐고, 손발은 고내포(高內浦)와 애월포(涯月浦), 명월포(明月浦) 등에 떠올랐다. 이런 까닭에 매년 정월 바람이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면 "등신(等神)이 왔다"고 하면서, 여러 무당을 모아 드르팻(野, 들녘)에서 제사를 지낸다. 떼비를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식하

송창훈작 바람의 신 영등, 스테인리스 스틸, 현무암, 2014





좁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는 섬비질, 가시리, 2007

고는 말이 뛰듯 놀리면서 신을 즐겁게 하였다. 2월 초열흘에서 보름에 이르러, 또 배 모양을 만들고 돛대를 꽃아 포구에서 띄우는데, 이를 '신을 보낸다(送神)'라고 한다. 이달은 배타는 것을 금한다.

바람은 제주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바람은 바다를 밑으로부터 뒤집게 하여 적조현상을 막아주고, 가뭄을 해소하는 비를 동반하여 곡식을 키운다. 바람은 동력이 되어 육지를 왕래하게 하며, 많은 신화와 전설을 잉태하여 우리의 문화적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바람의 길목 제주의 모든 역사는 바다와 관계가 깊다. 그래서 바람은 바다와 함께 설명해야만 제주가 잘 보인다. 제주에서 인식되고 있는 바람의 신은 '영등'이다. '영등'은 외방신으로 '영등할망', 혹은 '영등하르방'이라고도 하며 신격이 남녀로도 관념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연등(燃燈)'이라 하여 음력 2월에는 승선을 못 하게 하고 있다.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루 한림읍 수원리로 들어오고, 이달 15

일에는 우도로 나간다. 또 영등달인 2월에는 '보말(고동)의 속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영등할망'이 오면서 다 까먹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등할망'은 제주에 '산 구경, 물구경, 동백꽃·복숭아꽃 구경' 오서 미역, 소라, 전복의 씨를 함께 가져와 바다에 뿌려주고 간다. 특히 영등달이라고 부르는 2월은 바람이 가장 세찬 달로써 바다에서 물질하기가 불가



임소영작
풍요의 신 영등할망, 그래픽, 2005

능한 달이며 절기상 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 부는 거센 바람은 바다에서 작업을 못 하게 하는 해산물의 수급 조절 장치가 된다. 결과적으로 기후 조건상 파도 때문에 바다에서 채취할 수 없다는 것은, 거꾸로 바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해산물을 키워주는 것과 같다. 영등할망이 바람의 신이나 풍요의 신으로 신격이 정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영등할망’은 잠녀들이나 어부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신으로 신앙되고 있으며, 이런 영등신은 북서계절풍이 영향을 받는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며,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신앙되고 있다.

바람의 상징 돌담과 민속

바람을 막는 상징으로는 돌담이 있다. 섬 전체가 마치 거미줄로 얽은 것처럼 그물망으로 돼 있다. 백호(白湖)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 발담과 집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산에는 돌아다니는 짐승이 있고 들에는 기르는 짐승이 있어 천 마리 백 마리가 무리 지어 다니기 때문에 밭을 경작하려면 반드시 돌담을 둘러쌓으며, 사람이 사는 집 또한 으레 돌을 쌓아 높다란 담장을 쌓는다. 이에 돌담으로 골

목을 이룬다.”

돌담의 중요성에 대한 처음 순위가 마소를 방지하고 바람을 막고 곡식의 쓰러짐과 추위를 막는 방풍의 기능인 것이다. 그러나 돌담은 높이 올라갈수록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일부러 돌담 구멍을 뚫어서 바람이 빠지면서 서로 잡아당겨 주어 안전하게 설 수 있다.

바람의 상징으로는 신들의 이동할 때 길을 자주 바람질(길), 구름질(길)이라는 말을 쓴다.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올 때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또 떠도는 불쌍한 영혼을 가리킬 때의 비유로도 쓰인다.

초가의 모양이 둥근 것도 바람 때문이다. 2년이나 3년마다 새(띠)를 키워서 지붕을 엮어 매는 것을 지붕 인다고 한다. 새가 부족하면 ‘고망새(여기저기 띄엄띄엄 자라는 새)’를 구해다가 충당한다. 격자로 단단히 매어야 태풍이 와도 바람을 무사히 넘겨 버릴 수가 있고, 지붕 고치는 작업은 마을 공동체가 서로 수놓어서(협력) 작업한다. 제주사람들은 바람을 삶에 비유하여 속담을 만들어 내었다. 음력 2월 영등절 쌀쌀

집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우짚담



한 바람을 비유하여 “2월 바람에 가문 쇠뿔이 오그라진다”라고 하여 믿기지 않는 비현실적인 일을 나무랄 때 쓴다. “바람 먹영 바람똥 싸는 놈 엇나(없다)”라는 속담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뜻이다.

또 “바람 세정흠민 미(해삼) 오그라진다”라는 속담은 바다 생태 환경을 보고 큰바람이 올 것을 잠녀들이 예견하는 속담이다.

바람은 자연으로서 기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부푼 희망이나 들뜬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바람들 었다”, “신바람 났다”가 그것의 표현인데 어떤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집착하는 상태를 이르기도 한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노래 가운데 긍정적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있는 것, 바로 신바람 나는 일이 바람과 연관된 최고의 즐거움이 아닐까. 🍷

돌담의 바람 구멍



도의회는 지금



현장속으로

의정 칼럼

제11대 도의회 의안 접수·처리 현황

알기쉬운 생활법률

연간 일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강주연



추석맞이 민속오일시장· 태풍피해 현장 방문

의장단·운영위원장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등은 추석을 맞아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 김항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 송영훈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방문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민속오일시장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이용, 직접 제주농품을 구매하면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체감물가를 확

인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한편 의장단은 민속오일시장 방문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와 함께 태풍 피해 현장인 서귀포시 보목항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및 고물가, 태풍 피해 등으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됐다”며 “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주도민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산고등학교 현장 방문 발전방향 모색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9월 28일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산고등학교의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총동문회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가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황 안내 및 학과개편을 통한 학과 재구조화 등 학교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학교 현안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산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성산고등학교는 현재 해양산업과와 일반학과 2개의 학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4개의 학과(해양산업, 항공정비, 드론조종·정비, 일반학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창식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성산고 학과 개편,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여건 조성 등 학교 현안을 세밀하게 검토해 성산고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학과개편 등 성산고등학교의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산고등학교는 2015년 새로운 해양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국립해사고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형평성 문제, 기재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서귀포의료원 방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 위원들은 9월 27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서귀포시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 서귀포의료원 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추진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을 살펴본 후 현안사항을 청취하고자 진행됐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새로운 복지화두인 공유복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를 방문, 지역주민간 돌봄공동체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방문한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서귀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근무자분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이익 우선하는 의정활동 펼칠 것

이정엽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 체제가 탄생하면서 무소불위의 제왕적인 도지사를 낳았고, 산남·북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때에 거창하게 내걸었던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되고 전시행정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설상가상,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오염훈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는 제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 환경,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과 해묵은 숙제들로 민-관 갈등뿐 아니라 민-민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처럼 실타래로 얽혀있는 제주의 현안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도민의 참여와 이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하여 도의회에 입성하였고, 전반기에 활동할 상임위원회로 행정 자치위원회를 선택했다.

지난해 제주에 접수된 민원은 제주시 428만 6000건, 서귀포시 171만 4000건에 달한다. 제주도 4만 6000건을 포함하면 도내 전체 민원 건수는 한해 600만 건을 웃돈다고 한다.

공직사회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앞에서 있는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소극적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사'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와 기지 진입도로, 제2공항,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월정리 동부하수종말처리장, 비자림로 확장공사, 서귀포시 우회도로 등 갈등 해결이나 사회적 대화, 사회협약 체결 유도에도 의정활동을 집중시켜 나갈 생각이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라는 단어를 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3곳으로 늘어났기에 새로운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는, 특별자치의 미래에 관한 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 역할은 물론 생산적 정책대안을 제시해나가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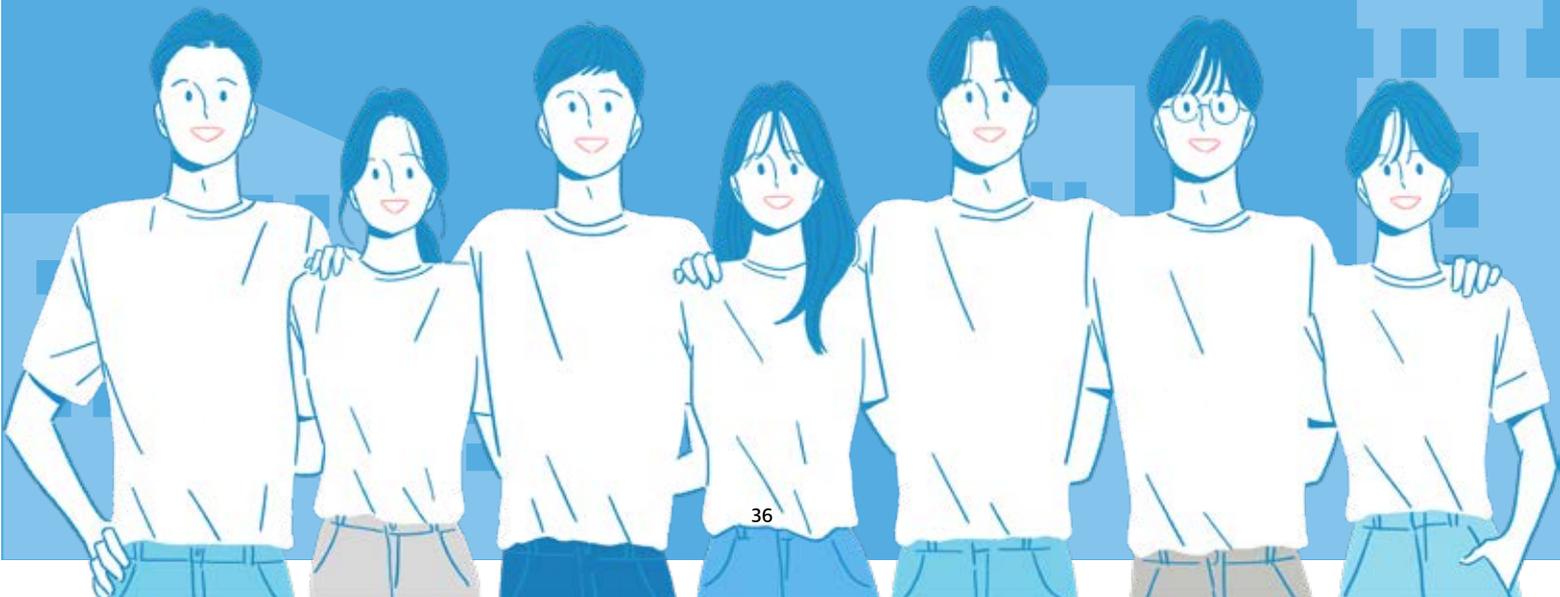
지역주민이 곧 제주특별자치도다.

이 말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며, 제주도정의 모든 기준이 도민 참여와 이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차별성이 희석되고 걱정만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함께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공동체 제주를 만드는 도의원상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한다.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복지

김기환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

이 말은 지금의 2030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거처온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열심히 노력한다면 스스로 원하는 성취를 얻을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유래 없는 불황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청년들은 ‘노오오오력’ 하더라도 스스로 원하는 성취를 얻거나 극복해낼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다.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 청년들의 노력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기에 제주는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라 청년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21년 기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총 88개의 세부과제가 추진 중이다. 분야별 세부과제 건수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36건으로 40.9%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문화’와 ‘주거’는 각각 10건(11.4%), 7건(8.0%)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 비중을 보면 ‘복지문화’의 예산 비중은 4.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정책’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아닐까. 쉽게 끝나지 않을 장기 불황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좌절감과 불안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청년복지와 청년문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굴되고 더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복지는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청년세대는 단순히 구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이다. 청년복지 정책의 시작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에, 온 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그 출발을 응원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 🏡



지역과 협력하는 국가공기업 상생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하성용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상생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460조에 국가공기업과의 협조를 통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지역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은 69개의 본점과 본부(지부 등)가 있다. 그러나 지역과의 상생, 협력은 한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국가공기업은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인 국토의 전략적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운영해 왔다. 즉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로 경제적 차원에 역할을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사회적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국가공기업은 기능적 확장을 통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분권화 차원에서 거버넌스 주체로 상생협력 또는 협력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공기업의 경제개발 기능을 지자체로 일부 이양하여 공기업기능 개혁 및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고,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역 주민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개발관점에서 국가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각각의 국가공기업의 분야별 정책을 중심으로 공유된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수요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 역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초점은 지역주민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스스로 자생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제주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협업이 가능한 국가공기업 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하에 상생협력의 전형적 개발을 통해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비전과 다문화정책

양홍식 의원 / 교육위원회



해마다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은 이후 2020년 2,259명, 2021년 2,616명이며 올해는 2,876명으로 10%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를 초과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과 예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2~2026년 제주도교육청의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을 보면 제주교육재정의 총수입규모는 8조 4,838억 원으로 연 평균 6.1%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은 연평균 3.3%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수혜는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더더욱 언어장벽과 정보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까지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보니 수업결손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사회 성을 기르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 그럼에도 중도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학생들은 동화책을 읽을 수는 있어도 문해력 부족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공부에 흥미를 잃고, 게임에 빠지거나 또래들과 밤늦게까지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서귀포 시에서 도내 첫 다문화 엄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매우 반갑기 그지없다. 다문화엄마학교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고 학교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엄마 역할을 하는 다문화 엄마’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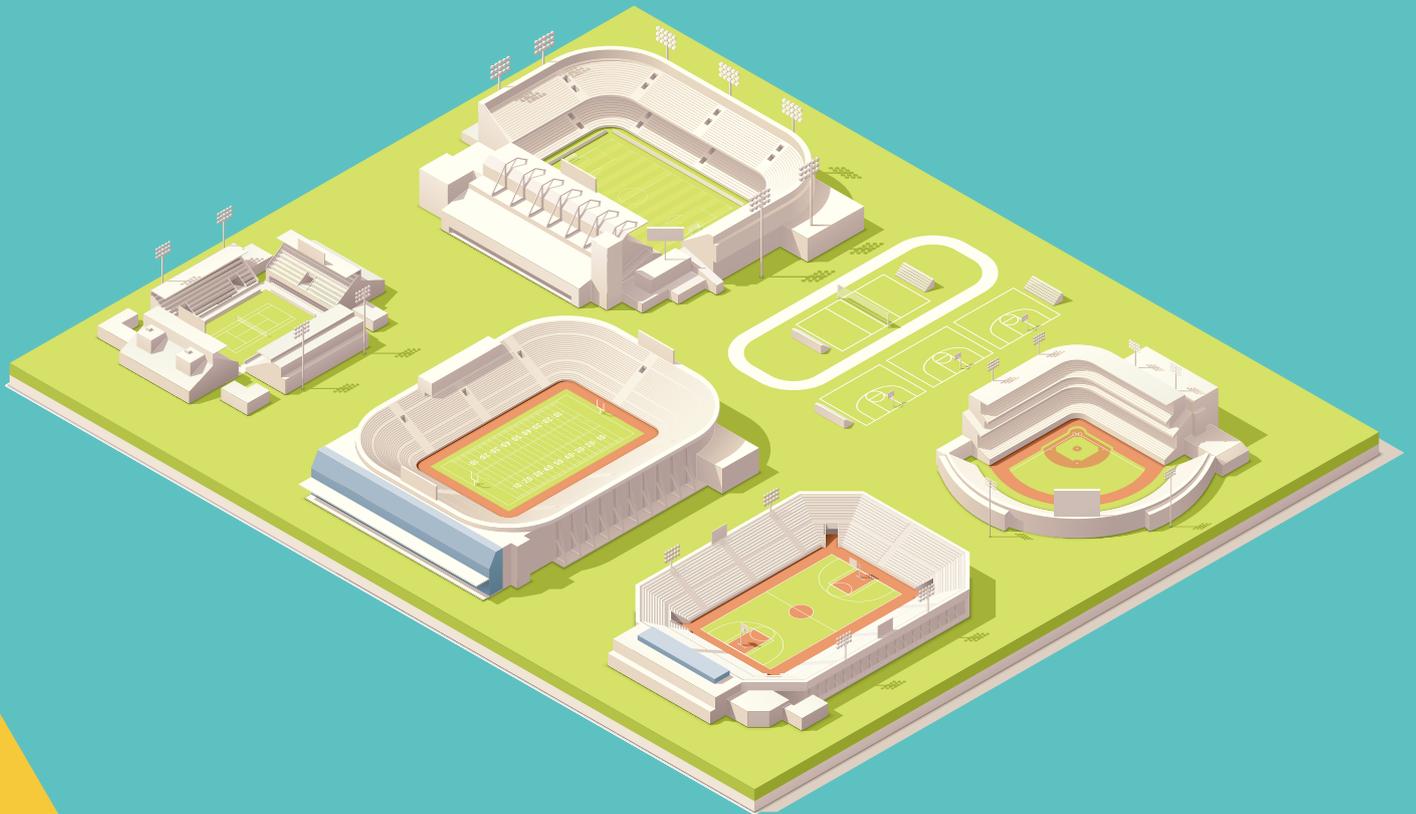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엄마학교가 운영되는 시간에 자녀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독서나 체육, 특기, 학업 등 다양한 교육이 병행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욕심도 난다. 특히 내년부터는 입학할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이제 다문화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닌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 제주지역도 글로벌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와의 공존·공생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우리에게 지어준 과제인 것이다.

특히 제주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비율도 높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이루고 글로벌 시대에 당당히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이 제주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파크&컴플렉스 리빌딩 연차사업으로!

홍인숙 의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민선8기 첫 도정질문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 선배·동료의원들과 도민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다. 본 의원의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정책에 대한 첫 질문 요지는 바로 체육인프라 확충 방안이었다. 민선8기 체육분야 목표는 “생활체육 및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 제주 실현”으로 아직 세부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가운 공약이다. 왜냐하면 현재, 제주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들은 준공된 지 30년, 많게는 50년이 넘어 노후화라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이는 생활체육을 비롯하여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는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의원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유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과연 지금 제주가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이유 때문이다.

제주종합경기장은 1968년도에 자리를 잡아 주·부 경기장과 애항운동장, 연정구장 등이 조성되어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도민들의 생활체육 영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이 1980년대 중후반에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 운영 및 개보수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새로운 관점의 종합스포츠타운 이상의 시설이 건립될 때는 소요예산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전국체전 유치에 힘을 쏟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2014년 제주 전국체전 개최로 1,90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03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또한, 제주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지훈련 유치는 취업유발 효과 3,393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901억 원, 생산유발효과 1,923억 원을 발생한다고 한다. 최근 건강과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을 고려하면 향후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의원이 지난주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도지사에게 질문한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도 공감하였다. 도지사 의견 또한 더 이상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렇다. 체육시설의 트렌드는 현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합문화공간 역할까지 하는 지속가능한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제주도 큰 그림의 스포츠파크&컴플렉스로 리빌딩하는 플랜 전환은 미래 스포츠산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미래지향적인 종합스포츠타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 그 이상으로 제주의 랜드마크 역할과 더불어 경제 파급력을 보여줄 멀티 스포츠 파크&컴플렉스가 연차사업으로 조성되어 스포츠 관광산업의 확대 그리고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탄소중립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

강하영 의원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찌는 듯한 더위도 다가오는 가을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무척이나 반가운 요즘이다. 5.16도로의 나무들은 초록의 옷을 벗어 던진지 오래고 굴밭의 굴들도 조금씩 노란빛을 띠어가며 이렇게 가을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은 늘 굴밭과 함께였다.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는 인고의 과정을 거치고 맛보는 굴은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유일하게 아낌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먹는 추억의 맛과 밖에 나가면 온통 주황빛으로 수놓아진 감굴의 물결... 그렇게 나의 어린 시절은 늘 굴과 함께였기에 지금 어느덧 내 나이에 생각해보니 굴은 그리움과 추억의 짝사랑 상대였나보다.

지구 온난화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때 제주도에서도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결과적으로 너무 잦은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는 것과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8월 말 남원읍 수망리에 마라도 면적 3배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조건부로 의결이 됐고, 2012년 가파도에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일환으로 풍력발전기가 세워졌으나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태양광발전으로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풍력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심의·의결 사항이지만 태양광발전은 정부에서

관여하기에 진정 제주도의 자치권은 어디 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수소경제의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경제성 확보가 큰 과제로 주어지는 듯하다. 그러기에 더욱 재생에너지의 속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신문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 소개하고 마칠까 한다.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가져야 한다. 전기를 생산하는 순간부터 탄소중립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먼저 알려야 한다. 설치 후에도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환경훼손과 공공재의 사유화, 경관의 사유화, 효율성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한으로 이어져 사업자의 원망을 받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진정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가 되려면 기초부터 철저히 고민해야 한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제주도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잠식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어린 시절 길가마다 주황빛으로 물들어 예뻐서 사라져 가는 ‘굴림추색’이 이 가을에 더 선명하게 와 닿는다. 🍂

제11대 의회 의안 접수·처리 현황



I. 11대 의회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 2018년 7월 개원 이후부터 2022년 6월 폐원까지, 총 2,873건의 의안을 접수해 2,828건(98%)을 처리하였으며 45건(2%)을 미처리 하였음
- 의안 유형별 접수현황은 ①조례안 1,172건, ②동의(승인)안 1,147건, ③기타의안 285건, ④청원 84건, ⑤예(결)산·기금안 78건, ⑥결의안 39건, ⑦의견제시 39건, ⑧규칙안 21건, ⑨건의안 7건, ⑩재의안 1건 순임

전체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계류)	비고		
		소계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불채택 (불수리)				
			원안	수정								
누계	2,873	2,828	2,163	571	13	35	43	3	45			
조례	소계	1,172	1,137	567	542	5	13	10	0	35		
	의회제안	의원 발의	726	700	300	388	2	7	3	-	26	
		위원회 제안	49	49	48	-	1	-	-	-	-	
	도지사 제출	368	362	205	142	2	6	7	-	6		
	교육감 제출	29	26	14	12	-	-	-	-	3		
예산·결산·기금	78	78	62	16	-	-	-	-	-			
재의	1	1	-	-	1	-	-	-	-			
동의·승인	1,147	1,140	1,080	10	5	16	29	-	7			
건의안	7	7	6	-	1	-	-	-	-			
결의안	39	37	34	3	-	-	-	-	2			
규칙안	21	21	17	-	-	4	-	-	-			
의견제시	39	38	38	-	-	-	-	-	1			
청원	84	84	75	-	-	2	4	3	-			
기타	285	285	254	-	1	-	-	-	-			

<참고> 기타의안: 고시안, 인사청문요청안,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II. 11대 의회 위원회별 의안 처리 현황

- 처리 의안은 총 2,828건으로 ①행정자치위원회 877건(31%)을 처리하였으며, ②환경도시위원회 407건(14%), ③보건복지안전위원회 276건(10%), ④교육위원회 275건(10%), ⑤문화관광체육위원회 272건(10%), ⑥농수축경제위원회 268건(9%), ⑦의회운영위원회 104건(3%), ⑧예산결산특별위원회 64건(2%) 등의 순으로 안건을 처리하였음

- 처리 의안 중 조례안은 1,137건(40%)으로 ①행정자치위원회에서 224건(20%), ②보건복지안전위원회 195건(17%), ③환경도시위원회 190건(17%) 등의 순으로 처리하였음

위원회별 의안 처리 현황

구분	구성비	접수	의안 처리 현황 (건)									미처리	
			소계	조례안	예결산·기금	동의안	결의·건의	규칙안	재의안	의견제시	청원		기타
합계		2,873	2,828	1,137	78	1,140	44	21	1	38	84	285	45
본회의	10%	265	265	-	-	-	3	-	1	-	-	261	-
운영위	3%	107	104	64	-	-	10	21	-	1	2	6	3
행자위	31%	888	877	224	-	646	4	-	-	-	3	-	11
보건위	10%	281	276	195	-	74	3	-	-	-	4	-	5
환도위	14%	412	407	190	-	124	6	-	-	33	54	-	5
문광위	10%	278	272	161	-	96	3	-	-	1	10	1	6
농수축	9%	276	268	152	-	97	8	-	-	3	8	-	8
교육위	10%	282	275	151	14	102	2	-	-	-	3	3	7
예결위	2%	64	64	-	64	-	-	-	-	-	-	-	-
특위	1%	20	20	-	-	1	5	-	-	-	-	14	-

<참고> 1. 구성비는 상임위원회 처리건수 기준(2,828건=100%)
 2. 처리건수는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불수리, 불채택 포함

III. 11대 의회 조례안 접수·처리 현황

1. 종류별 (제정·개정·폐지) 조례안 접수·처리 현황

- 조례안 접수건수는 총 1,172건으로 의회 제안(의원+위원회) 775건(66%), 집행부 제출 397건(34%)(도시사 368건, 교육감 29건)이며, 이 중 1,137건(97%)을 처리함
- 조례안 종류별 처리 건수는 (총 처리 1,137건 대비)
 개정안 804건(71%) > 제정안 326건(28%) > 폐지안 7건(1%)임
- 조례안 종류별 접수 건수 대비 의회 제안 조례안의 비율은 '제정' 85%(291건/344건), '개정' 59%(482건/821건), '폐지' 28%(2건/7건)임

조례안 접수·처리 현황

구분		계	제정	개정	폐지	비고 (미처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접수	1,172 100%	344 100%	821 100%	7 100%	35	
	처리	1,137 100%	326 28%	804 71%	7 0.6%		
의회 제안	의원 발의	접수	724 62%	278 81%	444 54%	2 28%	25
		처리	699	264	444	2	
	위원회 제안	접수	49 4%	11 3%	38 5%	-	-
		처리	49	11	38		
	주민 조례	접수	2 0.1%	2 0.5%	-	-	1
		처리	1	1	-	-	
집행부 제출	도지사	접수	368 31%	50 15%	314 38%	4 57%	6
		처리					
	교육감	접수	29 2%	3 0.8%	25 3%	1 14%	3
		처리	26	3	22	1	

- <참고> 1.접수의 구성비는 총 접수건수(의회+집행부) 대비 제출자별 구성비율
 2.처리의 구성비는 총 처리건수 대비 제정·개정·폐지안의 구성비율
 3. 비교의 미처리 세부 내역은 5쪽 참고

2. 역대 의회 비교,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 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전체 조례안의 62%(726건)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의 약 2배에 달하며, 후대로 갈수록 발의 건수는 증가함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비교 결과, 11대 의회 발의 실적은 10대 의회 대비 114%, 9대 의회 대비 201%, 8대 의회 대비 548% 증가함
-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16.8건으로 역대 의회 동기 대비(10대 8.2건, 9대 5.8건, 8대 2.7건) 약 2배~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역대의회 비교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구분	조례안 (건)				역대의회 대비 의원발의 증감률	비고
	계 구성비	의원발의 구성비	위원회제안 구성비	집행부제출 구성비		
11대 (2018년 7월 ~2022년 6월)	1,172 100%	726 62%	49 4%	397 34%	-	

10대 (2014년 7월 ~2018년 6월)	919	339	47	533	114%
	100%	37%	5%	58%	
9대 (2010년 7월 ~2014년 6월)	606	241	19	346	201%
	100%	40%	3%	57%	
8대 (2006년 7월 ~2010년 6월)	681	112	12	557	548%
	100%	16%	2%	82%	

<참고> 1. 조례안은 발의·역대의회 동기대비(4년) 기준으로 작성함
 2. 의원 1인당 발의건수 의원정수는 11대 의회 43명, 8대~10대 의회 41명임

IV. 11대 의회 의안 미처리 현황

- 11대 의회의 미처리 의안은 총 45건으로 본회의 상정보류 4건, 상임위원회 상정보류 및 심사보류 등 41건임

총계	본회의	위원회 소개	위원회별						
			운영	행자	복지	환도	문광	농수축	교육
919	919	919	919	919	919	919	919	919	919

- 의안 유형별로는 조례안 35건, 동의안 7건, 결의안 2, 의견제시 1건임

- ▶ 본회의 상정보류 의안 : 4건[조례안 2, 결의안 2]
-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V. 11대 의회 부결·폐기 등 의안 현황

- 11대 의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부결, 폐기 등 의안은 총 94건임
- 처리내역은 본회의 부결 13건, 폐기 35건, 철회 43건, 불수리(불채택) 3건임

- ▶ 본회의 부결 의안 현황: 13건 [조례안 5건, 동의(계획)안 5건, 건의안 1건, 재의안 1건, 기타 1건]
- 상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을 얻지 못한 안건
- ▶ 폐기 의안 현황: 35건 [조례안 13건, 규칙안 4건, 동의(계획)안 16건, 청원 2건]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상임위 부결)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폐회 기간 제외 7일 이내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본회의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
- ▶ 철회 의안 현황: 43건 [조례안 10건, 동의(계획)안 29건, 청원 4건]
- 의안 제출자의 의사표시(요구)에 의하여 철회 한 안건으로, 철회요구는 본회의 의결 전까지 가능함
- ▶ 청원 의안 중 불수리·불채택 안건 현황: 3건
- (불수리) 제출된 청원의 내용이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 되어 수리하지 않은 청원
 - (불채택) 청원 취지 달성, 청원 취지의 실현 불능, 타당성 결여 등의 사유로 채택하지 아니한 청원

알기쉬운 생활법률



Q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자동차를 빌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자차 손해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선택적 보험가입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가입에 대한 약관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보도자료 바로 보기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 2.17.(목) / 10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상임위 6일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공휴일 2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 3.30.(수) / 9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안건 처리
상임위 5일	• 현장방문 등
공휴일 2일	

4월 제404회 임시회 4.25.(월) / 1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1일	• 안건 처리

6월 제405회 임시회 6.14.(화) ~ 6.21.(화) / 8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안건 처리
상임위 4일	• 현장방문 등
공휴일 2일	

7월 제406회 임시회 7.1.(수) ~ 7.6.(수) / 6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3일	•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 1일	• 제12대 의회 개원식
공휴일 2일	• 원구성 등

7월 제407회 임시회 7.11.(월) ~ 7.18.(월) / 8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주요업무보고
상임위 4일	• 안건 처리
공휴일 2일	• 현장방문 등

7월 제408회 임시회 7.21.(목) ~ 7.29.(금) / 9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2일	• 안건 처리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9월 제409회 제1차 정례회 9.16.(금) ~ 10.12.(수) / 27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8일	• 도장·교육 행정질문
상임위 5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예결위 4일	• 안건 처리
공휴일 10일	• 현장방문 등

10~11월 제410회 임시회 10.18.(화) ~ 11.4.(금) / 18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12일	• 안건 처리
공휴일 4일	• 현장방문 등

11~12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 12.15.(목) / 31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8일	• 도장·교육 행정질문
상임위 7일	• 2023년도 예산안
예결위 8일	• 안건 처리
공휴일 8일	• 현장방문 등

12월 제412회 임시회 12.19.(월) ~ 12.23.(금) / 5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1일	• 안건 처리
예결위 2일	• 현장방문 등

계 10회 - 총132일

의사일정	총132일
본회의 34일	• 정례회 2회/58일
상임위 47일	• 임시회 9회/74일
예결위 17일	
공휴일 34일	

제주를 느끼다 명인열정

제주 도기가
빛어 만든 박물관,
강창언 촌장

글 강진희 작가 / 사진 편집부



강창언 촌장이 있는 제주도에촌에는 가을 단풍보다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붉은 도기들이 먼저 울긋불긋 땅을 물들이고 있었다. 강창언 촌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마자, 강창언 촌장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소개해주듯 '제주원시미술공간(제주도에촌 작품공간)'에 옹기종기 수집한 제주전통도기를 보여주며 탐라국의 그릇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쉽 없이 설명해주었다.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도 있는 도기의 속성 앞에 조심스레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손을 백자와 청자에게 과감히 가져가 역사와 전통의 미를 한결 한결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호사도 선물해 주었다.

제주도기 이야기를 들으며 촉각을 통해 그 당대의 미와 소통할 수 있는 제주도에촌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어쩌면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은 제주도에촌이 아닌 이곳을 만들고 지켜온 강창언 촌장일 것이다. 꺼질 새 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훗날 타고 있는 탐라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맥이 끊어진 제주 전통 옹기를 복원하고 35년 넘게 제주의 문화유산을 답사·연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발을 내디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고향은 용담 한두기 마을입니다. 어릴 때 이사 다니며 산도동 외진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반짝이는 도자기 조각을 많이 모았습니다. 문득 10대가 되면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해 초등학교 시절, 기와를 굽는 곳까지 찾아가 구경하는 재미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언제 그릇이 만들어지냐고 계속 찾아갔는데, 그곳은 기와만 만드는 곳이었어요.

20대 때 본격적으로 그릇 만드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당시 제주에는 아라리와 고산 쪽에 화분을 원시적으로 만드는 곳만 있었어요. 제주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파손된 그릇더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다 선사유적인 토기조각들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가마터를 전부에서 한 7~80군데를 찾았는데, 80%가 제주 서쪽 부근에 몰려 있었어요. 제주도에 돌이 많다고 했지만, 그쪽으로는 발에 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 흙이 관련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하며 글도 쓰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강창언 총장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플라스틱그릇에 밀려 1969년 이후 완전히 맥이 끊겨 버린 제주옹기를 안타까워하셔서 1970년대부터 홀로 제주의 옛 옹기가마터를 찾아다니며 전통 옹기 복원에 매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예촌의 역사 시작이 궁금합니다.

90년대 들면서 살아있는 제주도공들과 직접 작업을 해보면서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 제주 그릇에 관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술단체라든가 미술관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필요성 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큰 부지와 비용으로 인해 엄두가 나지 않다가 5년을 보낸 후에 아무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 많던 도공들이 대부분 돌아가셔서 10명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때 뼈저리게 느껴졌죠. 더 늦기 전에 제주 가마 유적들이 가장 많은 곳인 대

정에서 가장 흥미진 곳에 땅을 사서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제주도예촌입니다.

전통 옹기 돌가마 복원을 위해 옛날 도공장(물레에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과 불대장(굽는 사람), 굴대장(가마 만드는 사람)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셨을 때 흔쾌히 응해주셔서 도와주셨나요?

모두가 반대했어요. 한 가마치 항아리를 만들어서 실패하면 그 집안에 영원히 일어서지 못한다는 경제적 우려를 많이 했어요. 95년 당시엔 제가 따로 직장에 있을 때라 밤과 주말에 이곳에 와서 혼자 돌을 날라 막가마를 축조하는 흥내를 낸 거죠. 한 14명이 가마축조를 할 줄 안다고 했는데 막상 할 줄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말없이 계셨던 굴대장 흥태권 선생님이 가마 축조 방법을 아시는 분으로 유일하게 생존해 계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마에서 사셨던 그 분은 가마의 위치부터 돌의 종류까지 속속들이 아시고 계셨어요. 불을 때는 방법뿐만 아니라 심지어 흙을 구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타협을 몰랐던 선생님과 고집이 센 석공과 함께 1년 걸릴 가마 작업을 3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98년에 완성된 가마에 99년부터 제가 직접 불을 넣어보면서 잘못된 곳을 손보고 흙도 다시 바르고 수정해나갔습니다. 한 도공을 데려다가 창고가 딱 찰 정도로 제주도기를 계속 만들어 봤어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돌가마(석요)에서 바로 구워내는 제주옹기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실 답사를 다녔던 1985부터 90년까지는 저는 제주 옹기의 매력을 몰랐습니다. 제주 도공들은 당연한 것처럼 유약 얘기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도 외국 작가들이 오면 유약을 칠하지 않고 한번 그릇을 구워보라고 권합니다. 엄청난 공정이 사라질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 오염을 시키지도 않고 사람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가 제주 옹기를 ‘인간을 생각하는 옹기’라는 뜻으로 ‘인사옹’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처럼 깨끗한 그릇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기관 연구소에 공식적으로 한 40건 정도 분석 의뢰했지만, 해로운 물질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주옹기는 유약을 쓰지 않았는데 은은한 광택은 어떻게 만들 어지나요?

첫 번째로 자연 유약의 효과를 내려면 극한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땀감으로 사용하는 섬피에는 엄청나게 많은 재가 날리는데, 그 재가 그릇에 붙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유약의 효과를 내며 스스로 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마의 땀감용으로 큰 나무가 아니라 잡목이나 풀과 잎이 붙어 있는 잔 나뭇가지를 묶어놓은 ‘섬피’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 가요?

가마에 불을 지필 때 땀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요즘 으로 치면, 트럭 100차, 200차 정도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통나무를 사용하는데, 제주는 ‘섬피’라고 해서 나뭇가지가 들어가요. 나뭇가지에 이파리가 붙어있는 것을 잘라서 다발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제가 한번은 통나무로 불을 넣어보았지만, 태풍처럼 몰아치며 타들어 가는 섬피의 화력은 은은한 통나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자연의 유약 효

과도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의 힘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섬 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제도적 으로 도내에서 자유롭게 나무 자체를 옮길 수가 없어요. 옛날 형식의 가마에서는 통나무가 절대 효과를 못 내기에, 전통가마 형식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안을 연구한 끝에 새로운 가마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섬피를 때는 것만큼 효과는 없어요.

제주 선조들이 검은굴과 노란굴 가마를 굳이 구별해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용성에 따라 나눠서 사용했어요. 검은굴에는 낮은 온도로 주로 쌀과 같은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 음식 만드는 시루, 불을 직접 가하는 화로 같은 그릇을 구웠어요. 노란굴은 1,200도의 고온으로 발효음식이나 술과 같은 발효주를 담는 노란그릇을 구웠어요. 땀감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검은굴에 구워진 그 림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제주도에촌 내부 전시관





오래전에 하신 어느 인터뷰에서 작업이 가능한 제주 전통 도공들의 나이가 대부분 70~90세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에 관한 내용과 제주 전통옹기는 굴대장, 불대장, 대장, 건애꾼 등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점차 도공인의 작업 방식이 전통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이야말로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작고하신 굴대장 흥태관 선생님께서 가마 축소 기술을 제게 전수해 주신 것처럼 전통기법과 기술에 관한 시대전승이 필요합니다. 화분 만드는 곳도 제대로 없었던 제주에 제주도예촌을 설립한 목적은 제주 도예문화의 육성이예요. 저는 자격이나 맥이 끊겨도 진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진실한 전승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능력 좋게 자금 받아서 제주도기를 하는 그분들도 나이를 먹으면 정말 제대로 전통을 이어 나갈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제주도예촌의 촌장이라는 직함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세기 제주박물지' 등 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하신 역사 저자이자 학술가이신데, 그중 가장 즐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엄청 힘들지만, 저는 이 그릇을 만들 때가 가장 편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만 하라고 하면, 저는 온종일 그릇만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주 역사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점차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누군가는 남겨야 하니까. 언제까지 제주도가 자연, 풍경만 가지고 살아갈 건가요? 결국 사람이 만든 역사가 남는 거예요. 문화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곡되고 훼손된 탐라문화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제주 옹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사실 '옹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두가 옹기라는 용어를 쓰기에, 저도 옹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아 옹기라고 씁니다. 세계적인 대회인 '옹기 엑스포'에 가서도 옹기라는 단어가 아닌 '독'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옹기는 형태입니다. '옹기사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옹기는 사발, 병처럼 그릇 중에 한 종류입니다. '독' 혹은 '도기'라고 불러야 합니다. 도기옹기, 도기항아리, 도기사발이



라는 말이 맞습니다. 청자사발, 백자사발이 맞는 말처럼, 재질 더하기 형태가 돼야 합니다. 플라스틱 사발이 플라스틱 플라 스틱이 되면 안 되죠. ‘제주전통도기’라고 칭해야 옳습니다. 고유의 것들이 자꾸 변이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기나긴 외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보람된 일은 엄청나게 많죠. 저의 연구조사 이후 제주에서만 국가사적지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곳이 보존되고 그곳에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제주사람들이 다양하게 증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만의 지키고 싶은 가치와 소명은 무엇인 지요?

한 지역의 그릇이지만, 그릇 속에는 지역민의 역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 그릇을 통해서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계속 남기고 기록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뜻을 함께하는 단체가 있다면 같이 건물을 짓고 도예촌의 엄청난 자료들을 옮겨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 제주도에 촌에 오면 조선백자를 만져보고 제주 전통 항아리를 만져보는 것처럼 박물관 유리관 안에 모셔서 사진도 못 찍게 하지 않고, 관심 있는 어린 학생이 만져보고 직접 손으로 두드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 문화를 바로 알아야 외국 문화와 충분히 교류해 나가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주 문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진실성을 갖고 접근할 때입니다. 잘못 알려지고 왜곡된 부분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유적지가 부서지고 있어요. 문화재 보존을 요구할 거예요. 가마 위에 돌무더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공사판 돌무더기로 부서지고 있는데 침묵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소외되어, 역사의 연표에도 나오지 않는 탐라역사문화를 학자들이 나서서 제대로 연구하길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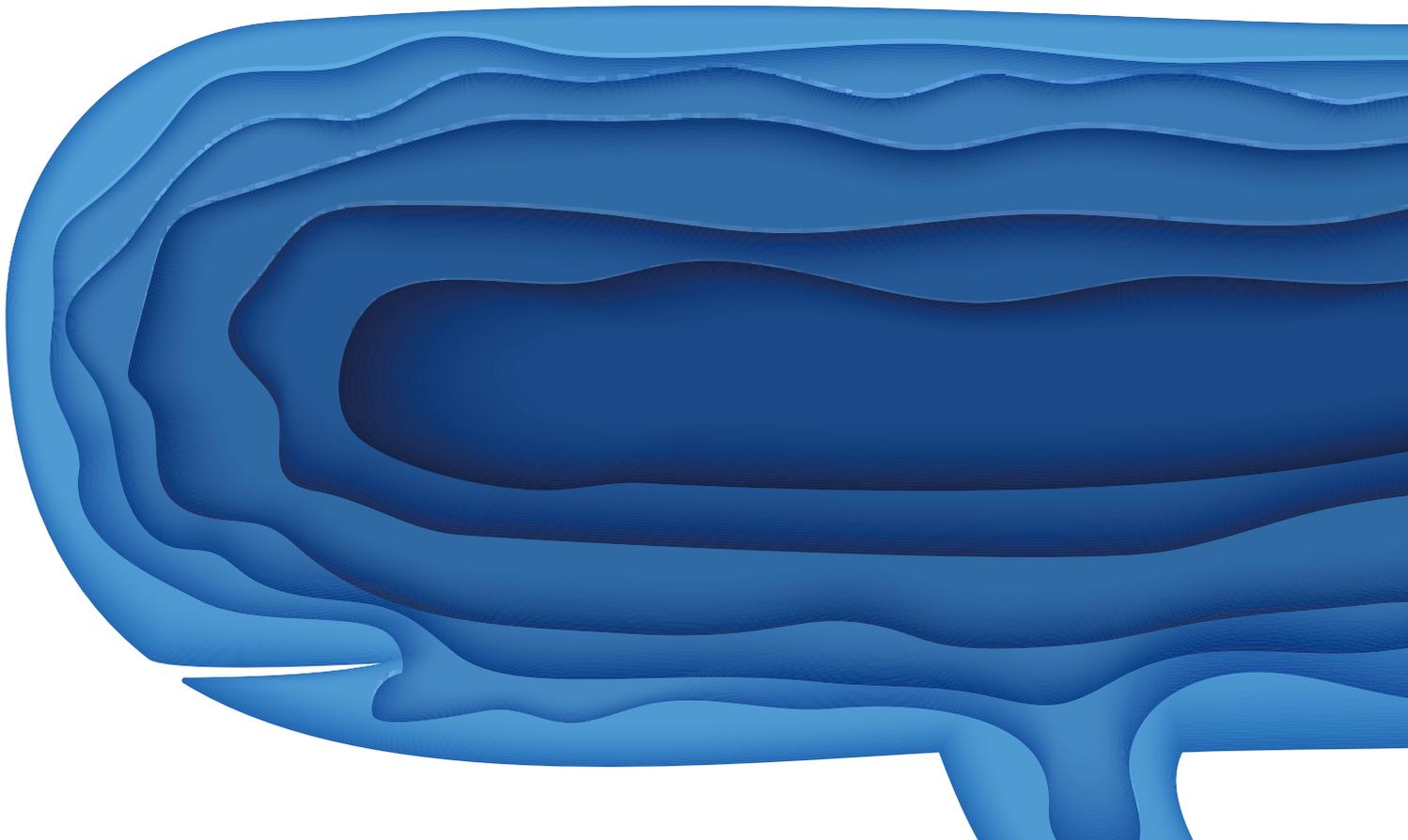
또다시 바다로 간 고래가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

글 / 사진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학박사

제주 바다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립수산물학원은 지난해 7월 제주연근해에서 참다랑어를 비롯한 참치류 5종의 어린 물고기가 채집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다랑어의 알은 드물게 확인된 적이 있었지만, 새끼는 처음이다. 바다 수온의 상승과 동시에, 동아시아로 흐르는 조류(潮流)인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인 대만난류가 우리나라의 남해와 동해를 통과하면서, 참치 치어도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치에 관한 이름은 여러 설이 있지만, '진짜로 맛있고 참다운 물고기'가 일반적이다. 근데 횡감이나 통조림으로 종종 식탐하지만, 너무 비싸다. 그러나 보니 귀한 생선을 마구 잡아서 팔아야겠

다는 생각으로 참치가 멸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먹는 양반 따로 있고, 그 고급 참치와 바다를 걱정하는 백성이 참으로 딱하다. 미래의 제주 바다에서도 참다랑어의 비극은 계속될 듯싶다.

이형상 목사는 1704년에 집필한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우도(牛島) 행차에서 본 해양동물 관찰기록을 남겼다. 내용은 이렇다. '수우(水牛)가 놀라 울부짖으며, 바다로 뛰어들었고, 소리가 마치 산을 치는 듯했다'. 크기나 습성을 고려할 때, 독도강치와 같은 바다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300여 년이 흐른



2012년 1월에 비양도에 큰바다사자 한 마리가 찾아왔다. 제주 근해에는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범, 점박이물범, 물개 그리고 다양한 고래류의 출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제주 해역은 그야말로 덩치 큰 포유류의 낙원이었다. 예나 지금도 밍크고래와 같은 대형 고래류는 해류 따라 제주도 근해까지 접근한다.

과거 고래를 무차별하게 포획한 적이 있다. 1926년에 동경포경주식회사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서귀포항에 고래 공장을 세웠다. 이후 일제는 제주해역에서 수십 마리의 대형고래를 마구 잡아들여, 씨를 말릴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주해역에서 기록된 고래는 모두 10여 종에 이르며, 범고래, 참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대형고래도 나타난다. 제주 연안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래는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이다. 상괭이는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겨서 아주 순한 고래이지만, 죽은 채 연안에서 밀려온다. 핫이슈로 떠오른 남방큰돌고래의 사정도 밝지 않다.

남방큰돌고래는 몸 크기가 2m 이상 자라며, 등은 짙은 회색이고,

배는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을 띤다. 암수 주둥이가 짧으며, 수컷이 암컷보다 조금 큰 편이다. 수명은 약 4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새끼는 1마리를 낳으며 임신 기간은 12개월 정도이다. 제주 연안에 정주하는 습성이 강하며 100여 마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고래는 제주어로 '수웨기', '수애기', '곰새기', '곰수기' 등으로 불리며, 해녀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다. 지금도 해녀와 선박 가까이에 따라붙을 정도이며, 무리를 이루어 헤엄치다가 바다 위로 솟구치는 행동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돌고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며 키우는 젖먹이동물이다. 죽은 새끼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남방큰돌고래는 모성애가 강한 편이다. 제주 속담 '수웨긴 원담에 든



남방큰돌고래는 해안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간혹 몸을 물 위로 솟구치는 행동을 보여준다.

새끼 생각하다가 죽는다'입니다. 돌고래 어린 개체가 먹이활동을 하다 연안의 원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미도 새끼를 보호하려고 원담 안에 있다가 어부에게 잡힌다. 고래의 먼 조상은 고민 끝에 다시 바다로 되돌아갔다. 몸이 워낙 크게 비대해지자, 육상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다. 자기를 받아준 바다를 위해, 고래는 바다를 떠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으로 육지로 다시 올라올 줄이라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왔다.

10년 전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 결정을 내리자, 2013년 7월 18일 구좌읍 김녕리 목지코지 해상에서 공연 시설에 갇혀있던 남방큰돌고래 두 마리(제돌이, 춘삼이)가 자연으로 방사되었다. 앞서 함께 방류 예정이었던 삼팔이는 6월 22일 가두리 그물을 뚫고 나간 상태였다. 이후 제주의 돌고래쇼 시설에서 나와 건강이 회복된 태산이와 복순이는 2015년 7월 6일 함덕리 가두리에서, 2017년 7월 18일 금등이와 대포가 함덕리 가두리에서 각각 추가 방류되었다. 그리고 2022년 8월 4일부터 비봉이가 자연방사를 위해 대정읍 해역에 적응 훈련에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손에 의해 자유를 잃었던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간 셈이다. 안타깝게도 2022년 6월에 성산포 앞바다에서 야생으로 방사된 태산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정확하게 생사 확인은 어렵지만, 나머지 7마리가 진짜 자유와 행복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비봉이가 바다 적응에 들어간 이후, 때마침 우영우 드라마의 인기가 치솟고 시점이어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솟구치고 있다. 비봉이는 2005년 한림읍 비양도 해역에서 잡힌 개체로, 곧 친구들과 합류할 예정이다. 제주 서부 해안도로에는 실제 돌고래를 보러온 관광객들로 붐비면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신할 정도이다. 사실 돌고래는 제주도 주변 해역을 돌면서 머물기 때문에, 비양도, 우도, 성산포, 남원 등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화려한 진화를 거쳐 물으로 올라온 고래도 김녕 포구, 산지천 포구, 박물관, 공항, 하늘 등 도심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 연안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의 분포와 개체수 변화는 제주 연안의 생태계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최근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해상에서 좌초된 남방큰돌고래와 상괭이의 사체가 매년 수십 마리씩 제주 연안으로 떠밀려 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선에서 버린 폐그물이나 낚시줄에 의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간혹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부유물도 고래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반 선박이나 유람선과의 충돌 사례, 제트스키 과도한 접근 관광, 해상풍력에 따른 저주파 영향, 대규모 어업 시설에 따른 피해 사례, 수온 상승과 어족 자원의 변화 등이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면밀한 연구와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2019년 12월 어린 참고래가 한림도 비양도 해역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참고래 골격 표본은 2022년 10월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2. 2004년 9월 애월읍 하귀2리 가문동에서 좌초된 브라이드고래가 복원과정을 거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기후위기와 수온상승, 바다상처, 참다랑어 출현, 돌고래 죽음은 다 사람들의 욕심과 무관하지 않다. 누구나 범인이면 그 범인을 잡을 수 없다. 서로를 의심하기 전에 세상을 올바르게 걱정하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제주 바다는 늘 잔잔하지 않지만, 남방큰돌고래는 언제나 잔잔한 감동을 선사해준다. 그리고 돌고래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도

그렇다. 한때 사람을 위해 혼신을 다한 남방큰돌고래처럼 이제 사람이 나서야 할 때다. 바다가 인류를 먹여 살린 만큼, 바다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바다가 인간의 욕심을 다 받아줄 것이며, 다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도 더 큰 야망을 가질 것이다. 🌱



함께 걷는 그림, 제주 벽화 거리

글 / 사진 편집부

벽에 그려진 그림은 공간을 한정하는 벽의 경계 요소를 단번에 허물어 버린다.

그림으로 허물어진 경계는 한 예술가의 캔버스가 되고,

거리를 걷는 행인은 지붕 없는 갤러리 안의 자유로운 관객이 되어 선을 허문 예술을 감상한다.

열린 하늘 밑 벽에 담긴 그림에는 작가가 남긴 위안과 이야기가 동네 이웃처럼 함께 살아간다.

벽화는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터로 떠난 대낮의 빈 골목에서도,

밤이 짙게 내려앉은 거리에서도 가로등 불빛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환하게 비춰준다.

벽화는 우연히 방문한 낯선 걸음에도 따뜻한 색으로 다정한 인사말을 잊지 않는다.

어딘가 서둘러 가지 않아도 되는 느슨한 시간이 발길에 차인다면,

그림이 사는 벽화 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벽화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보폭에 맞춰 함께 걸어주는 그림들이

저마다의 색조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이다.

어색하지 않은 동행이 시작되는 제주의 벽화 거리 3곳을 소개해본다.



시간은 느릿느릿, 추억은 오고생이 담겨있는 곳 남수각하늘길 벽화거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100-50

1599년 산지천 위에 만들어진 다리인 남수각 주변, 제주 원도심에 자리하고있는 남수각 하늘길은 총 220m 거리로 30여점의 벽화들이 웅기증기 기대어있는 곳이다. 작품이 걸린 미술관의 벽면처럼 그림마다 세심하게 기록된 작가의 이름과 작품 해설이행인 관람객의 작품감상 이해를 도와준다. 알록달록 그림책 처럼 펼쳐진 벽화를 따라 걷다가, 틈틈이 벽에 박힌 쇠구절을 여유있게 읊조려보아도 좋다. 두툼한 양장 앨범에 끼여진 오래된 사진처럼 제주의 옛 전경이 정겹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벽화에는 추억이 반갑게 떠다닌다. 담벼락에 적힌 ‘오고생이(고소란히), ‘느릿느릿(느릿느릿)’, ‘모다정(모여서)’라는 제주어는 마치 남수각 하늘길의 또 다른 이름처럼 그 공간을 잘 설명해준다. 문득 일상의 루틴이 이끄는 길이 지겨워진다면, 잠시 빗겨서서 30분간의 일탈로 나만의 골목 미술관 투어, 남수각 하늘길 벽화거리를 걸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18번 올레길이 지나가는 이 곳은 동문 재래시장, 산지천 갤러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이 근처에 있어 나만의 반나절 도심투어도 즐길 수 있다.





차가운 금속이 품고 있는 따뜻한 제주 이야기 김녕 금속 공예 벽화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026

제주올레 20코스 시작점인 김녕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성세기 해변까지 약 3km의 거리에는 29점의 금속공예 작품이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다시방 프로젝트’에 의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페인트로 벽에 색을 입히는 일반 벽화 작업과 달리 금속공예 작품을 벽에 설치해 김녕 금속공예 벽화마을이 만들어졌다. 10명의 예술가가 버려지는 금속제품과 제주 현무암을 이용하여 김녕에 사는 해녀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담아냈다. 안내판이나 팸플릿은 따로 없는 탓에,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채색된 화장기 없이 수수한 금속공예 작품들을 마치 숨은그림찾기처럼 찾아 나서야 한다. 오랫동안 바닷가의 소금 바람을 맞은 금속공예 작품들은 노화가 빠른 피부처럼 녹슬고 부식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걷는 관객에 마음을 조금 안타깝게 한다.



바람길을 따라 흩어져 피어있는 그림, 신천리 벽화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서로 5

제주도 성산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리 벽화마을은 '바람코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로 거센 바람이 머물다 가는 해안마을이다. 벽화를 그리는 탈북 화가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설지'의 촬영지가 되면서 조용한 어촌마을은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영화 촬영에 필요한 벽화를 신천리에 그리는 것을 시작으로 젊은 지역 화가들의 개성 있는 그림들이 마을 곳곳을 채워나갔다. 마을 입구 신천리복지회관 앞에는 신천리 벽화마을 벽화 안내도가 있을 정도로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림들은 각자의 주소를 갖고 있다. 제일 먼저 익숙스러운 미소의 스펀지밥이 두 팔 벌려 꽃다발과 함께 방문객을 환영해준다. '꽃피는 마을 신천리'라는 이름으로 동네 담벼락과 집 외벽에는 다양한 30종의 꽃 벽화가 피어 있다. 너른 동네 길을 따라 한적하고 여유로운 마을 산책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저물지 않는 꽃길로 안내해주고, 마음을 토닥토닥해주는 짧은 글귀가 위안이 된다. 근처에 있는 제주 토속신앙의 당신을 모신 '신천리 분향 당'과 옛날 햇불과 연기로 소식을 전했던 '천미연대'를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



제주를 느끼다 제주의 향기

철따라 자연에서 찾은 제주인의 음식문화

글 / 사진 강용희 (사) 제주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시계도 없던 시절, 선조들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체크하고 절기에 맞춰 농사일을 챙겼다. 절기는 봄을 알리는 입춘부터 시작해 대한을 마지막으로 하는 태양의 황도상 위치에 따라 15°간격으로 계절적 구분을 하기 위해 24절기로 나눈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농사 등 절기에 따라 해야 할 일정들을 가다듬었다. 망종 즈음이 되면 보리를 베고 하지가 되면 가을에 수확 할 콩을 파종하며 추분이 되면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지금은 모든 물산이 풍족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먹을 게 부족해 배를 고왔던 시절이었다. 곤밥이라고 불렀던 쌀밥은 명절이나 제사때, 그리고 생일 때나 먹어 볼 수 있었고, 요즘은 이들이 멀다하고 입에 오르는 여러 종류의 육류도 일년에 몇 번 먹어볼 수 없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먹거리를 비롯해 모든 게 부족했던 그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먹었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을 보면 음식 DNA도 이어지는 것일까.

물산이 부족했던 시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제주인

들은 자연에서 먹거리를 찾았다. 추위가 물러가고 입춘을 맞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냉이다. 냉이의 풋풋한 향은 봄 내음을 물씬 풍기며 입맛을 돋우게 한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제주어로 ‘평마농’이라고 하는 달래다. 달래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서 움트기 시작하는데 경칩 즈음이 되면 보이기 시작해 캐다가 먹었다.

냉이가 은은한 봄의 향기를 전한다고 하면 달래는 식욕을 완전히 당기게 한다. 달래의 향은 냉이의 그 것과 비교해 강력하게 후각을 자극한다. 캐어온 달래로 달래장을 만들면 밥 한 사발은 거뜬히 똑딱 해치운다.

한 달여 시간이 흘러 청명을 넘겨 가면 새순을 내미는 조피가 입맛을 자극하며 식욕을 돋운다. 운향과의 관목인 조피는 지역에 따라 죄피·제피 등으로도 불리며 육지부에서는 산초·천초라고도 했다. 조피는 잎을 따다가 간장에 담가서 먹거나 된장에 버무려서 먹으면 그 풍부한 향이 입에 가득하게 퍼지며 식욕을 당기게 한다.

해녀들이 작업한 해산물을 옮기고 있다.





평미농(달래)



드릅



밀순



자리돔



말뚱버섯(큰갓버섯)



양애(양하)

이후 등장하는 것이 드릅이다. 드릅나무 순이 움직이는 시절이 되면 지금이야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사람들이 친환경 건강식으로 먹기 위해 드릅을 캐려는 사람들로 오름과 들판에 넘쳐나지만 보릿고개 시절에는 호구책의 일환이었다.

이때쯤 제주에서 여름 반찬의 대명사인 마농지도 등장한다. 과거 겨울 초입에 김장을 담그는 것이 세시풍속이었다면 곡우 쫄음의 시기에 집안마다 마농지를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마늘의 줄기와 뿌리를 끓인 간장에 담가 숙성시켰다가 먹었는데 그냥 반찬으로 먹는 것도 좋았지만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에 날뒀장을 푼 뒀장국에 마농지를 찢어서 넣고 말아 먹으면 요즘의 어느 맛좋은 음식이 부럽지 않았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뒀장을 날로 물에 풀어서 먹는 지역은 제주밖에 없는데 지역의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는 이러한 음식문화와 잘 맞았다.

입하를 넘겨 5월 중순 전후가 되면 밀순이 담벼락을 타고 나오기 시작한다. 밀순은 청미래덩굴과의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인 밀나물로 제주에서는 ‘밀순’으로 불리는데 밀가루의 재료인 밀의 어린 싹을 말하는 육지부의 밀순과 구분된다.

밀순은 이 시기가 되면 지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산나물로 밭의 담벼락에서도 쉽게 채취할 수 있었다. 예전 부모님들이 점심을 싸고 밭에 가서 일할 때 점심때가 되면 밀순을 뜯어와 뒀장에 찍어 먹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 밀순은 반드시 뒀장과 함께 해야 제맛이다. 어린 밀순을 한웅큼 뜯어 뒀장을 푹 찌고 입안에 넣으면 씹새름하게 씹히는 맛이 그만이다.

보리 수확이 마무리 되는 6월이 되면 자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옛날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식재료를 즐긴 어종이다. 해변이나 중산간이나 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리젓을 담그는 것도 김장과 마농지처럼 세시풍속이었다.

이러한 자리젓은 7월에 나오는 콩잎과 찰떡궁합으로 인해 효용가치가 컸고 이후 마농지와 함께 일년 내내 집안의 기본 반찬으로 요긴하게 이용됐다.

입추 전후가 되면 밭과 들에 말뚱버섯(큰갓버섯)이 머리를 내민다. 어릴 때 아버지는 벌초를 다녀오거나 할 때면 으레 농기구 손잡이를 할 나뭇가지 한 두 개와 함께 말뚱버섯이 가방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이 말뚱버섯을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조려서 내놓았는데 선조들이 자연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먹거리 대부분이 입맛에 맞지 않았었는데 유독 이 말뚱버섯 조림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철이 되면 가끔 말뚱버섯을 채취해다가 조려서 먹는다.

가을이 되면 전령으로 등장하는 것이 제주어로 ‘양애’ 또는 ‘양갓간’이라고 하는 양하다. 양하는 봄에 줄기를 채취해 뒀장에 찍어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그 향기가 좋다. 가을 양하는 뿌리를 캐어 날 것으로 뒀장에 찍어 먹거나 주로 뜨거운 물에 데친 후 여러 양념을 넣고 버무려서 먹었다.



‘마농지가 곁들여진 제주 향토 음식 차림

이 땅의 선조들은 이처럼 물산이 부족하고 삶이 어려웠던 시절, 자연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래서 앞서 열거한 것처럼 새해가 열리는 입춘이 되면 냉이부터 시작해 달래, 조피, 드릅, 마농지, 밀순, 자리젓, 콩잎, 버섯, 양하 등 철따라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이용해 삶을 영위해 왔다. 그것은 어쩌면 삶을 이어가야 하는 녹녹치 않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먹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반세기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시 귀했던 라면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일 정도로 입맛에 맞지 않았던 식재료였을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지금의 50대 이상의 세대와 달리 어릴적 부족한 먹거리 환경을 경험하지는 않고 자랐다. 지금의 후대들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 물산이 극히 부족했던 시대에 선조들이 자연에서 찾은 먹거리들을 찾게 될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 제주인들이 즐겨 먹었던 자연을 식재료로 한 음식들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재료로 한 음식들이 입맛을 돋우고 있는 것을 느낄 때면 어릴적 좋아하지 않았던 그 식재료들을 시나브로 가까이 하고 있는 자신이 신기해진다.

이때쯤이면 이제 양하가 고개를 내밀고 있을 것이다. 양하를 직접 캐다가 씻고 다듬어 가을향기를 맡으며 먹어봐야겠다. 🍷



자리젓

두드림의 에너지로 아름다운 인생을 꾸려가는 국향난타

글 / 사진 **고영림** (사)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제주프랑스영화제 집행위원장



몸짓으로 하는 행위는 많다. 운동, 율동, 무용을 먼저 연상하게 되지만 악기를 연주할 때도 몸짓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악기는 단연 타악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구나 소고를 치는 모습을 보면 절로 흥이 난다. 박자도 맞춰야 하고 강약 조절도 해야 하는데 장구나 소고보다는 큰 북을 칠 때 더 시원한 느낌이 든다. 찌뿌둥하거나 뻑뻑해진 몸을 풀면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큰 북을 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 한때 난타 열풍이 일었고 수없이 많은 난타팀들이 만들어졌다. 몇 년 전에 아마추어 여성 난타팀의 연습실을 우연히 방문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녀들이 난타에 열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뜨거웠던 여름이 멀리 떠나고 성큼 다가온 가을이다. 이 계절에 연상되는 꽃은 단연 국화가 아닐까 한다. 이 꽃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만든 난타팀이 있다. 제주여성총동문회의 ‘국향난타’(대표 송미숙)를 인터뷰하게 되어 필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살짝 들떠있을 정도였다. 어떤 여성들이 이 연주단체를 만들었는지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기대감을 안고 연습실에 들어섰더니 북소리가 엄청나다. 연습을 마친 그녀들과 마주 앉은 순간, 서정주 시인의 시 ‘국화 옆에서’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대목이 떠오른다. 맑고 개운한 표정의 그녀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니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제주의 모습도 그려진다.

2011년 시작된 ‘국향난타’는 제주여성총동문회의 국향봉사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 급식, 목욕,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봉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창단됐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 주관행사의 식전행사, 국향봉사단 워크샵 식전행사 등 활동을 하던 창단 당시에는 난타 동아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했다. 2011년 국향봉사단의 강준순 단장(4회)도 함께 했을 정도로 열정과 의욕은 대단했다. 지금은 11회부터 21회까지 17명이 활동 중이고 난타 전문 강사인 홍숙자 동문(16회)이 지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제주시 일도지구에 있는 건물의 지하에 모여서 1시간 30분 동안 연습한다. 북은 두 종류를 쓰는데 전통북과 창작북을 함께 쓴다. 아마추어에게는 창작북이 다루기가 편하다고 한다. 레퍼토리는 즐겁고 신나는 곡들 중심인데 한국 대중가요(트로트)나 아리랑메들리처럼 누구나 들어도 흥이 나는 곡들이다. 앞에 걸어놓은 악보는 알아보기 쉽게 강사가 직접 만들었다. 동문들이 만든 동아리인 만큼 자매들이 모여있는 듯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서로 동감한다. 난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시누이들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도저히 스트레스 쌓여서 안되겠다는 생각 끝에 난타하러 가겠다고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이제는 화요일만 되면 난타하러 가는 날이 아니냐고 남편이 물어올 정도라고 한다. 처음에는 연습 끝나고 귀가하면 손이 근질근질해서 두루마기 휴지나 베개를 북 삼아 두드렸더니 식구들이 엄청나게 웃었던 적도 있다. 먼저 시작한 친구 때문에 호기심으로 따라와 봤는데 이런 세계도 있었나 놀랍기까지 했다는 단원은 원래 박자치였는데 극복하려고 노력하니 많이 고쳤다. 비결은 악보를 보지 않고 소리로 그냥 외워버린 덕이라고 한다.

난타팀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대기 순서를 기다려서 간신히 들어올 정도다. 21회 졸업생이라 막내 역할 하는 단원은 얼마나 난타를 하고 싶었는지 국향봉사단원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봉사단에 들어간 후에 기회를 노려서 성공한 케이스다. 서로 이끌어주는 분위기가 좋아서 연습과 공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하고 있는 ‘국향난타’





전문 난타 공연을 보면서 꼭 빠져버린 단원의 말에 따르면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가슴 벅찰 정도의 자부심이 생긴다. 다른 무엇보다도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먼저 시작해준 덕에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어서 그 고마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된 단원은 손자들을 연습실로 데려왔더니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귀를 막았었지만 막상 무대에 선 할머니를 본 후에는 깜짝 놀라서 엄청나게 박수를 쳤다. 연주를 보러왔던 딸이 “우리 엄마 최고!”라고 칭찬해서 이제는 더 신나게 연습한다.

나이를 보면 5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 여성이 주축인데 신나게 두드리는 북채의 현란한 움직임과 북소리의 음량을 보고 듣다 보니 그녀들의 나이를 잊을 정도다. 게다가 놀랍게도 단원의 반 이상이 아직도 직장을 다니거나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우먼들이다.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 악기 연주를 한다는 것은 클리셰(*판에 박힌 생각)일 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녀들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 중년기는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 고향마을에서 공부를 매우 잘해서 제주시로 유학 온 단원은 제주여상을 졸업한 후 스무 살에 취업했다. 사내 결혼한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 지금은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다. 당시 다니던 S그룹 계열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동갑 친구들 앞에서 자부심이 컸다고 회고한다. 결혼자금은 당연히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련했다. 70년대는 타자, 주산, 부기 중심으로 배웠지만 80년대 초부터 전산교육이 시작되면서 컴퓨터를 사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산반은 5명만 뽑혔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다. 3학년 때 배정되는 진학반에서 공부한 동급생들은 거의 대학교에 진학했다.

유아교육에 뜻이 있어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싶었던 단원은 제주여상 다닐 때의 내신1등급 성적으로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했다. 열 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 둘을 키우던 35살에 직장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했지만 결국 3학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단했다. 90년대 초, 온 나라를 뒤흔든 D건설의 주택조합 파동 때 피해를 입는 바람에 수습하느라 대학을 졸업 못했다. 현재 건설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단원은 야간대 토목공학과 졸업하고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과후아동지도사 자격도 갖추었다. 일인 다역을 하는 것은 국향난타 단원의 필수 자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부 소속 학생들이 주말에 옛 목석원에 스

케치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라동 딸기밭이 보이길래 딸기 서리를 했던 추억 한 대목이 재미있다. 바로 옆이 아라파출소인 줄 모르고 신나게 먹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문기를 “너네 밭이나?”, 미술부 학생들의 대답은 “따 먹은 만큼 돈 낼 거우다!”. 거짓말이 들통나서 지도교사인 미술부 선생님이 호출되어 달려오시고 학생부 과장 선생님께서 불러가서 꾸지람 듣고 일주일 내내 교무실 앞에서 서 있어야 하는 일종의 명예 처벌을 받았다. 간혹 이런 해프닝이 있기는 했어도 공부만큼은 치열하게 경쟁했다. 주산 장학생은 시험으로 뽑았는데 3학년 때 뽑는 주산 장학생은 전교생 중 2명 뿐이었다. 주산 장학금을 받으면 수학여행비로 쓰기도 했다.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는 주산 장학생은 타자 연습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주산 장학생은 취직에 필수 조건이었던 타자를 졸업 전에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나중에는 주산학원에서 강의할 정도였다. 70년대와 80년대 좋은 직장으로는 금융권과 대기업을 꼽았는데 학교의 추천 후에 다시 시험과 면접을 거쳤다. 제주감정평가사무소에 여직원 구한다고 해서 갔다가 공적인 사무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했던 단원이 회고하기를 1달에 구두 한 컬레를 갈아 실을 정도로 현장을 부지런히 다녔다. 특히 감정서 작성은 정확해야 했기에 수기로 하지 않고 타자로 작성해서 공신력을 더 인정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열심히 살면서도 예술에 대한 열망은 꺾을 수 없었기에 중년이 된 나이에 연극으로 꽃피우기도 했다. 직장 다니는 중에 제주도 사라봉 자락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에 개설된 연극 교실에 등록 해서 연기를 배웠다는 단원은 마침내 제주도 대표로 뽑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무대에 올랐다. 그녀가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았던 작품 ‘휘파람새’는 전국 1등상을 수상했다. 제주로 돌아온 후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도 했다.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는 지금도 연극의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다시 연극을 하고 싶어한다. 역시 환갑을 앞둔 나이에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단원은 9개월에 걸친 훈련을 거친 후 인생 첫 패션쇼의 런웨이에 섰던 감격이 대단하다. 무대예술은 자신의 몸과 호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극을 했던 단원과 모델 활동하고 있는 단원이 국향난타에서 활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쟁도 고전무용도 배우고 싶다는 그녀들에게서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부한 말보다는 청춘이나 아니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첫 월급의 추억은 시대마다 다르다. 봉투에 담긴 현금 7만 원 또는 13만 원 또는 40만 원을 받았다. 첫 월급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식구들 식사 초대와 부모님께 드린 빨간 내의 선물이다. 결혼 전에 받은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면 계로 불러줘서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썼고 그러고도 남으면 부모님께 드렸다.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계가 더 수익이 많았던 때가 기억나는 순간이다. 결혼할 때 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시댁에 들어가 살거나 시댁의 밭거리에 살곤 했다. 신혼 첫 해는 시댁이 년세(제주어로 ‘죽어지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고 2년 차부터는 독립했다. 물론 남의 집 밭거리나 2층에 세를 들어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4대가 한집에 살았던 경우도 있다. 결혼 후 19년 동안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비로소 독립했지만 12년 동안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살림을 많이 도와주셨다. 90년대 제주도 원도심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아파트 등이 들어섰고 이 당시부터 본격적인 독립 세대들이 늘어났으리라 짐작된다.

‘국향난타’단원들의 삶의 흔적과 현재의 모습에 한국 속의 제주가 거쳐온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녀들의 손자 손녀가 살아갈 제주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통해서 그녀들이 태를 묻은 제주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 온다. 코로나 상황이 3년째 지속되면서 그동안 활동이 미미했지만 오는 10월 16일에 열리는 제주여성농동문체육대회 식전행사 무대를 준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면서 연습 하고 있다. 물론 초청해주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기꺼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국향난타’, La vie est belle! (프랑스어 ‘인생은 아름다워!’) 



조퇴홀 공냥도 으라 가지

글 김신자 시인, 제주어보존회 회원

방혹후난 아척이부떠 수업을 후는디 아이덜 모
 십이 으라 가지라양. 머리커럭이 왕상
 후여듬서 제비생이집을 짓언 나타
 난 아이, 눈꼴 비작비작 부떠듬
 서 늦도 시치지 안후고 하우
 염만 들구 후멍 나타나는
 아이, 풀모기 으라반디 물
 려신고라 별경케 굶어난
 헐리광 씨리빠 직직 곳
 이멍 나타난 아이, 춤말
 시상은 으라 가지라마
 씬. 야네덜이 방혹후여
 도 늦좁 후 번 자지 못
 후멍 후폴 오젠후난 얼
 메나 속상후코게 후는 생
 각이 들데다. 공뷔후기 실퍼
 도 어멍이 후교 가렝 후멍 들구 깨
 와가민 억질로 일어낭 오는 겁주게.



나도 두릴 적인 공뷔후기 실퍼가민 어멍후영 조퇴후여보
 코 하간 데긱박 굴리는 간세다리라났수다게. 그날은 나도
 막 조랍곡 어드레 놀레만 가고정후연 조퇴후기로 무음 먹
 었수다. 쳇 시간이 지나나 나광 벗 두 멍이 허염직후게 작
 전을 째수다. 후긱들로 우루루 병뎡이 정 가민 선싱님이 의
 심홀 수도 이시난 시간을 재멍 트멍트멍 고무실에 가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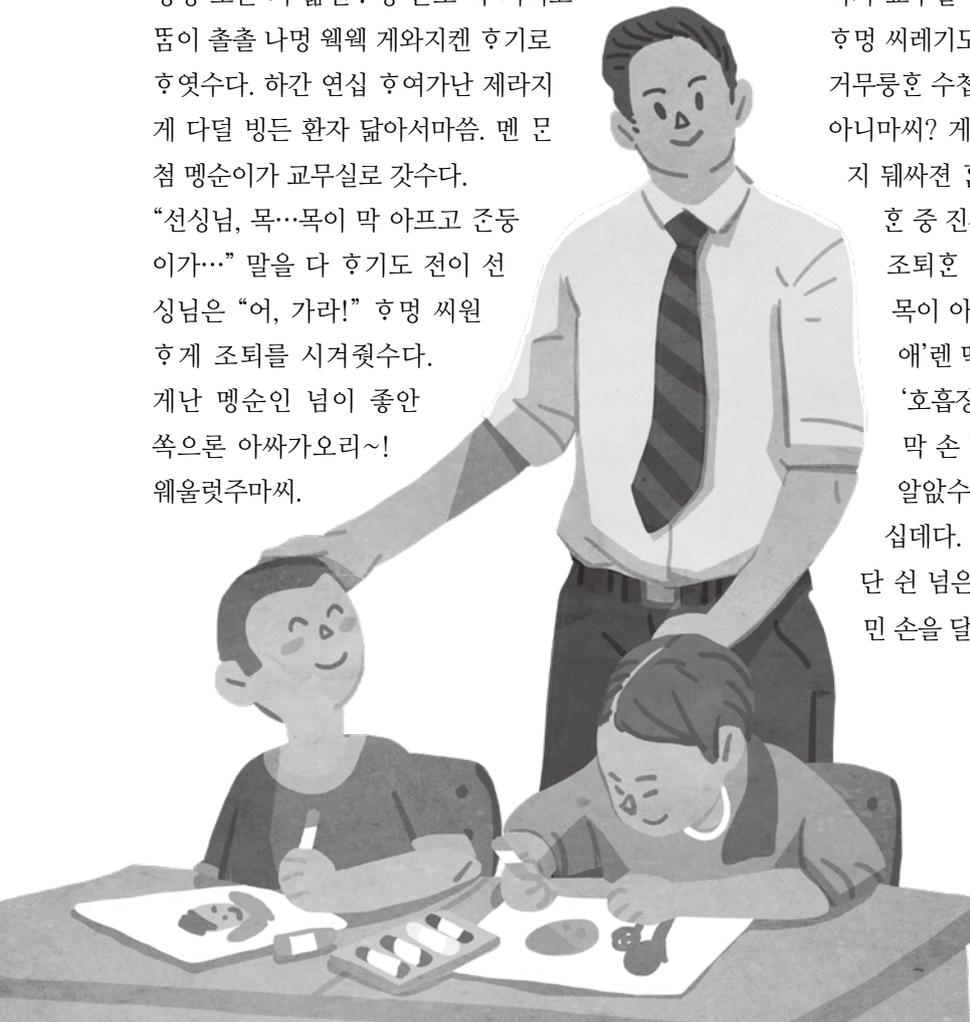
후엿수다. 조퇴후영 영화도 보레 가곡 빵집
 이 강 빵도 먹기로 후엿주마썬. 우리
 담임 선싱이 평소 모십을 보민
 후생덜신딘 관심이 벨로 웃엇
 수다게. 그자 후교 왕 조회
 나 종레후민 곳이라서마
 씬. 게난 경 까시롭지 안
 후연 조퇴후켁 후민 “어,
 가라! 어, 경후라” 후멍
 바로 승낙을 후여줘십
 주. 공뷔후기 실픈 것덜
 잡아뒤봤자 벨 볼일 웃
 다는 걸 미릇에 알아실
 텨주양. 경후당도 이녁이
 기분 나쁜 일이 싯거나 교
 장 선싱신디 후곡지 안 존
 소리 들은 후젠 우리신디 이거
 여 저거여 후멍 공쟁이결곡 욱을 욱을 후당도 남아서마썬.
 게난 싯은 무신 인천상륙작전 짜듯기 영후라 정후라 후멍
 춤지름 짜듯 하간 휘굴 문 굴렷수다.

일단 멍순인 목도 아프곡 준둥이 아판 조퇴후는 걸로 헛수
 다. 목이 팍 뻑현 소리도 안 나오고 준둥이가 막 아프텐 후
 기로 헛주마썬. 준둥일 폐왕 걸어가가민 아팡 뻑지도 잘
 못후곡 등뎡이가 수뭇 오그라들언 숨도 졸바로 쉬들 못후

켄 죽는 시늉을 하기로 하였주마썌. 게고 영순인 알레르기 천식이 싯텐 핑계를 대기로 하였수다. 코꽃병이가 곤질곤질 자기염을 타당 헛쟁이가 터지는 것추록 예취! 예취! 하여가명 생그짓말 하기로 하였수다. 콧물이 흠치 자륙탁자 른탁 터지곡 눈물도 주죽주죽 나완 살질 못하쿠편 하곡 가다오당 숨을 내쉬질 못하쿠편 하명 숨 버칭 흘강흘강 내는 소릴 내기로 하였수다. 멘 꽃병이엔 나가 가기로 하였수다. 나 츠레가 뉘난 머센 허대여사 홀지 잘도 고민이 뉘는 거라양. 아픈 거 다털 말헤부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홀 디가 엇언 더 죽어지커랍디다게. 이궁냥 저궁냥 하간 꿩굴 굴린 꾀던 손이 막 저리고 데병이가 어질어질 히어뜩하텐 하기로 하였수다. 메틀 전이 체육시간에 운동하단 갑제기 데병이가 히어뜩하명 푸더젓단 제오제오 일어난 교실안이 들어왔젠 골으명 죽는 시늉을 하기로 무음 먹어주주. 데병이가 어질어질 히어뜩하여가난 나가 7만이 이서도 하간 게 다 돌았젠 하기로 헛수다. 나도 돌주마는 요 ㅈ이 벋덜토 돌곡 책상도 돌곡 어지렁이하난 시상이 다 뵙뵙 도는 거 닻텐하명 손도 막 저리고 땀이 출출 나명 웨웻 게와지켄 하기로 하였수다. 하간 연십 하여가난 제라지게 다털 빙든 환자 닻아서마썌. 멘 문침 멩순이가 교무실로 갔수다. “선님, 목...목이 막 아프고 준둥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이 선님은 “어, 가라!” 하명 씨원하게 조퇴를 시겨줬수다. 게난 멩순인 녀이 좋안 쪽으론 아싸가오리~! 웨울러주마썌.

그 다음인 영순이가 교무실로 갔수다. 영순인 두릴 적부떠 말을 막 더듬어노난 벋덜이 말모레기엔 불려서마썌. 가이가 말하기 전이 문 알아들언 아 영헨? 아 경헨구나이~ 답을 알아먹어 불어주마썌. “선...선...선님, 조...조...” 영순이가 한마디 다 하기도 전이 문 알아먹은 선님은 “어, 가라!” 하명 무신 의사추록 확 조퇴 시겨줬수다. 게난 영순이도 지겨전 복도서 춤을 취서마썌. 이제 멘 꽃병이에 가는 난 가달머리가 달달 떨리는 거라양. 나가 어떻 말이라도 잘못 하는 날엔 꽃장나부난 막 불침웃이 아픈추록 하명 교무실에 갔수다. 웬착손을 ㄴ단착손 홀목게기에 잡안 달달달 터는 것추록 하명 흠치 데병이도 허지렁이 하연 죽어지쿠다 하난 선님은 영 나 상태를 좇듯이 슬편게마는 “어, 가라!” 하명 조퇴를 시겨줍데다. 우리 시 멩은 그날 완전 범죄로 가름도세기추록 헤실러헨기명 들구 높에 습전 밤새냥 주미지게 놀아서마썌.

그 일이 이신 후제 일주일 지난 교무실 청소 할 때랏수다. 나가 교무실 청소 당번이난 선님 자리덜 쿠쿨하게 소지 하명 씨레기도 비우곡 걸레질 하느디, 우리 선님 자리에 거무룽한 수첩이 날 막 봐도렌 하명 주지레기 나완 이신 거 아니마썌? 게난 이젠 뉘고 하연 슬쩍이 걷어보단 배설창지 뉘싸전 흠마 죽을편 헛수다. 난 우리 선님이 경 콧콧 혼 중 진짜 몰려서마썌. 그날 우리 시 멩이 조퇴한 날, 조퇴한 소유광 시간이 좇듯이 죽아전 이십데다게. 목이 아판 집이 가켄 혼 멩순인 조퇴소유가 ‘호흡장애’렌 딱 죽아전 싯고, 말모레기 영순인 조퇴소유가 ‘호흡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렌 죽아전 싯데다. 마지막 손 달달 털명 교무실에 간 난 조퇴소유가 뉘 중 알았수과? 간단이 한자로 ‘풍(風)’이렌 딱 죽아전 싯데다. 난 무사 풍(風)이렌 죽아져신고만 막 궁금하단 선 녀은 후제사 그 이율 알게 뉘어주주. 풍(風)걸리민 손을 달달 터는 것을양. 



유진꽃 향기가
계절이 바뀌어도
남아 흐르는

호근동·서호동



글 현택훈 시인
사진 편집부



호근동 복지회관 앞, 시「수선화」가 새겨진 김광협 시인의 시비

서호근동에 가편

지난 일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스모루에서 바다 쪽으로 난 오솔길을 걸었다. 그 근처에 아내의 고향집이 있다. 높게 보였던 돌담이 무척 낮아진 것 같다고 아내가 말했다. 아내는 날이 저물어 집으로 갈 때 으스스했던 기분을 떠올렸다. 길가에 무덤이 있어서 더 무서웠다는 길. 여전히 가로등이 몇 개에 의지한 어두운 길이다.

전망 좋은 언덕에 아내가 살았던 집이 있다. 지금은 게스트 하우스로 바뀌었다. 아내는 그 집에서 식구들과 27년간 살았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던 우리는 새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내 고향은 거로 마을인데, 내 고향과 아내의 고향을 저울질하다가 서귀포로 택했다. 서귀포의 따뜻한 바람이 책장을 넘겨줄 것만 같았다. 우리는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마을을 걸어보았다. 마을마다 기운이

있는데, 호근동과 서호동의 마을 기운이 참 좋았다. 근처에 신도시가 있지만, 마치 섬처럼 그곳은 조용한 농촌 마을이다. 송악이 드리워진 돌담과 오래된 골목길이 정겹다.

책을 나르다 호근동에 있는 김광협 시인의 시 벽화를 보게 되었다. 우리 책방은 시집 전문 서점이니 무슨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설레었다. 호근동은 치유의 숲이 유명하다. 숲에서 먹는 차롱도시락은 소화행 바람과 함께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 높은 웰빙 문화로 자리 잡았다. 서호동과 인접한 하논도 있는데, 호근동의 인물로 김광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다.



그는 『동아일보』와 『신동아』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런데 고향이 제주도라서 그런지 서울이나 제주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해 불리한 점이 있다. 김광협 시인은 1963년 「빙하를 위한 시」로 『신세계』 신인 문학상을



시인 김광협의 시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과 시인의 생애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받고, 196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강설기」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몇 해 전에 그를 기리는 김광협 문학상이 생겼으나 독자 들이나 문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호근동 서쪽에 서호동이 있다. 서호동 에는 고근산이 있어서 시민공원으로 사람 들이 많이 찾는다. 고려 말 목호의 난을 진압 하러 온 최영 장군과 군사들은 서호 동에 막을 쳐 머물렀다고 한다.

아내가 시를 쓰는 건 순전히 스모루 풍경이 원풍경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울레 7코스가 지나는 그곳 바다 풍경이 좋아 아내가 살았던 유년의 집은 현재 하얗게 페인트를 칠했다. 그 집은 아내에게는 알함브라 궁전이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꿈의 집이다.

서호동에는 서귀포 혁신도시가 들어서 상전벽해를 방불케

한다. 아내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소작으로 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굴이 무척 달았던 과수원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가 미래에는 큰 도시가 될 거라고 말했다는데, 아버지의 예언은 적중했다. 저녁이 되면 노랗게 빛나는 굴처럼 아파트 집집마다 주렁주렁 불빛이 열린다.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

호근동에서 이 년 동안 작은 책방을 운영했다. 시집 전문 서점이다. 호근동은 김광협 시인의 고향이니 시집 서점이 있는 건 어울려 보였다. 김광협 시인은 제주어 시집 『돌할오방 어디 감수광』(1984, 태광문화사)을 냈다. 이 시집 초판의 제목은 '제주 민요 시집'이다. 그만큼 김광협은 제주의 가락을 표현 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호근동 복지회관에는 김광협 시 「수선화」가 있다. 추사가 좋아



했다는 수선화는 산남의 빗물을 머금고 더욱 하얗다. “눈 내리는 밤에는 피는 꽃” 수선화로 제주에 내리는 눈을 기억한 시인은 유자꽃으로 향수를 달랬다.

김광협은 성장하면서 영천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김광협 의 아버지가 나비박사 석주명과 함께 아열대농업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다. 그렇다면 어린 김광협과 나비뿐만 아니라 제주어 연구를 하며 제주어사전을 준비하던 석주명의 만남도 있었을 거라는 문학적 상상을 할 수 있다.

호근동을 걸어보면 유자나무를 꽤 발견할 수 있다. 완연한 봄에 봄바람 불 때 유자꽃 앞을 지나면 “파아란 바다가 출렁이고, / 바다 뒤론 똑딱선이 미끄러지더이다”라는 시 「유자꽃 피는 마을」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작은 책방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범섬과 서귀포 바다가 보인다.

책방 문을 자주 열지는 못했다. 손님으로 찾아오던 몇 사람이 자칭 ‘돌킹이’라 말하면서 책방을 대신 봐줄 정도였다. 손님

많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다. 돌킹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서 놀았다. 그러는 모습으로 생기가 돌았다. 니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해바라기 벽화까지 그렸다.

책방을 하면 책방지기가 북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 나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서 좋았다. 특히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서점에 앉아있으면 낡은 집이라서 빗물받이에 부딪치는 빗소리가 음악과 섞여 듣기 좋았다. 최근에 다시 찾았을 때도 비 오는 날이었다. 함께 간 사람들과 우중산책을 하다 분식집에 들어갔다. 30여 년 전 분식집의 모습이다. 가격도 예전의 가격인 듯 착한 가격이다. 떡볶이, 국수, 순대, 고구마튀김 등을 먹었다. 서점을 할 때도 가끔 찾았던 곳이다. 빗소리를 들으며 허기를 채웠다.

한 동네에 작은 책방이 세 군데나 있었다. 그중에서 서호초 입구에 위치한 책방과 친했다.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책방에 가서 책을 산다. 책방 사정을 알기에 한 권이라도 구입해주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그랬다. 이제는 시집 서점은



산책 중 들른 동네 책방에서 / 필자가 운영하던 책방 옆에 아이들과 함께 그린 해바라기 벽화

서호동에 상수도가 처음 놓인 것을 기념해 세운 '서호수도기념비(西好水道紀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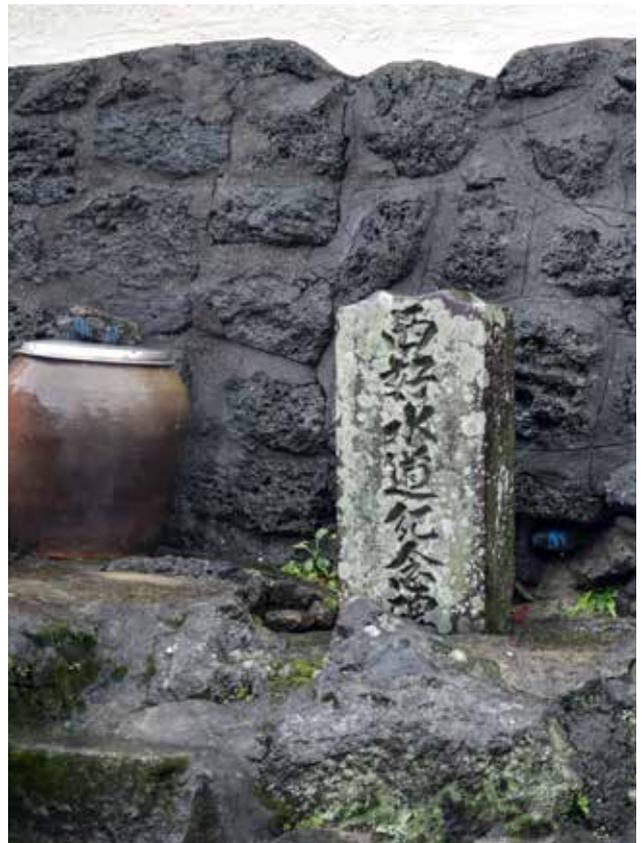
서호동으로 옮겼다. 그래도 서호초 입구 그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이들이 하굣길에 방앗간을 기웃거리는 참새처럼 하굣길에 들린다고 한다.

가끔 책방 앞 골목길이 궁금해 일부러 그곳을 지나기도 한다. 지금은 사진 관련 사무실로 바뀌었다. 그 골목 이름이 막동산 길이다. 막동산이라는 버스 정류장도 있다. 서점에서 만든 문학모임 이름이 '막동산 문학회'였다. 한림, 애월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점이 막동산을 떠나서인지 사람들이 흩어졌다. 유자꽃 향기처럼 바람에 날렸다.

서호수도기념비의 마음

호근동과 서호동을 큰 구분 없이 이웃한 마을이다. 산책을 할 때는 두 마을을 나누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게 된다. 큰 길에는 벚꽃길이 있고, 막동산길까지 버스가 들어온다.

서호동 어느 집 장독대 같은 곳에 비석 하나가 있다. 처음에는 어느 동네의 비석처럼 마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1927년 서호리에 수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세운 비석이다.



물은 마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수도가 마을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의 의미에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 있어서 좋다.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얼마나 기뻐하면 잔치를 열었을까. 통물에 가서 물허벅에 물을 가득 담고 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오죽 좋았을까. 각시바위 절곡지물에서 마을까지 수도를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땅을 팠다. 일본에 간 고향 사람들은 돈을 보내왔다고 한다. 마침내 수도가 완성 된 날, 마을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낙동배기도 했을 것이다. 그날만큼은 집집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것이다. 범섬이 보이는 법환포구 근처에는 최영장군승전비가 있다. 목호의 난을 제압한 최영 장군도 역사에 남을 일이지만, 이름난 왕이나 장군을 기리는 비석보다 시원한 물 한 사발 들이킬 수 있는 서호도기념비가 더욱 기념비적이다. 이제는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섰고, 비석에는 이끼가 가득하지만, 100년 가까이 지난 그 마음 여전히 흥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적신다.

서호동에서 호근동까지 걷다 보면 어느 집 벽에 작은 새를 그려 놓은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참새 모양의 작고 검은 새다. 처음엔 누가 그냥 장난삼아 그렸을 거라 여겼는데 마을을 걷다 보면 몇 마리 더 발견할 수 있다. 새를 찾아 걷다 보니 그 그림이 어찌면 무슨 암호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 궁금증을 갖고 지내다 남원에 있는 한 카페에 갔다가 그 새들의 본령을 만날 수 있었다. 새들은 그곳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아주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림이 그곳에 있었는데, 몇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해 서호동까지 날아왔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주도 전체에 새가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게 된다. 마을을 둘러보고 집으로 가는데 어느새 비가 그쳤다. 비 맞은 나뭇잎들이 싱그럽다. 태풍도 지나고,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오는 주말에는 고근산에 가야겠다. 꼭대기에 있는 분화구는 여전히 안온한 마음으로 누워있겠지. 그 분화구는 설문대할망이 궁둥이를 댄 흔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 정상 부근을 베개로 삼고, 고근산 굽부리에 궁둥이를 대고 범섬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 물장구를 쳤다고 한다.

고근산 정상에 오르면 옛날이야기가 펼쳐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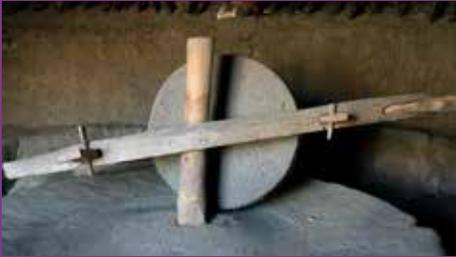
우중산책 중 마주한 필자가 운영했던 책방과 30년 된 분식집의 모습이 반갑다.

어제보다 새로운 제주,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물방애



제주 당거리동네 물방애(말방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물방애’는 회전하는 윗돌과 고정된 아랫돌이 방아틀에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이다. 윗돌이 돌아가면서 아랫돌 위에 널려 있는 곡식의 껍질을 벗겨주는 도정용 농구로 아랫돌은 지름이 2m가 넘는 것들도 많았다. 아랫돌이 클수록 윗돌도 크기가 컸고, 사람의 힘으로는 돌릴 수가 없어 근력과 지구력이 뛰어난 제주마를 방아틀에 매어 윗돌을 돌리게 하였다. 말이 돌리는 방이라는 뜻의 ‘물방애’는 ‘물 7레’, ‘연자매’ 또는 ‘연자마’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큰 규모의 방아를 오래 두고 쓰기 위해서는 비와 바람을 막을 지붕과 벽이 필요했다. ‘물 7렛집’, ‘물방이왕’ 등으로 부르는 제주 전통초가 형태의 집을 지어 그 안에 방아를 두고 보통은 3~4명의 사람이 공동으로 방아질을 하였다.

이때 방앗돌을 굴리면서 불렀던 노동요인 <방앗돌 굴리는 소리>가 제주 무형문화재 9호(안덕면 덕수리)로 전해 내려오고 있고, 애월읍 하가리 잣동네 물방애와 신엄리 당거리동네 물방애 2기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물방애는 거대한 돌을 깎아 방앗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관할 초가를 짓고, 곡식을 찧는 일까지 모든 공정이 마을 단위의 수눌음(품앗이)으로 이루어졌기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단결과 화합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던 공동체 상징물이다.

